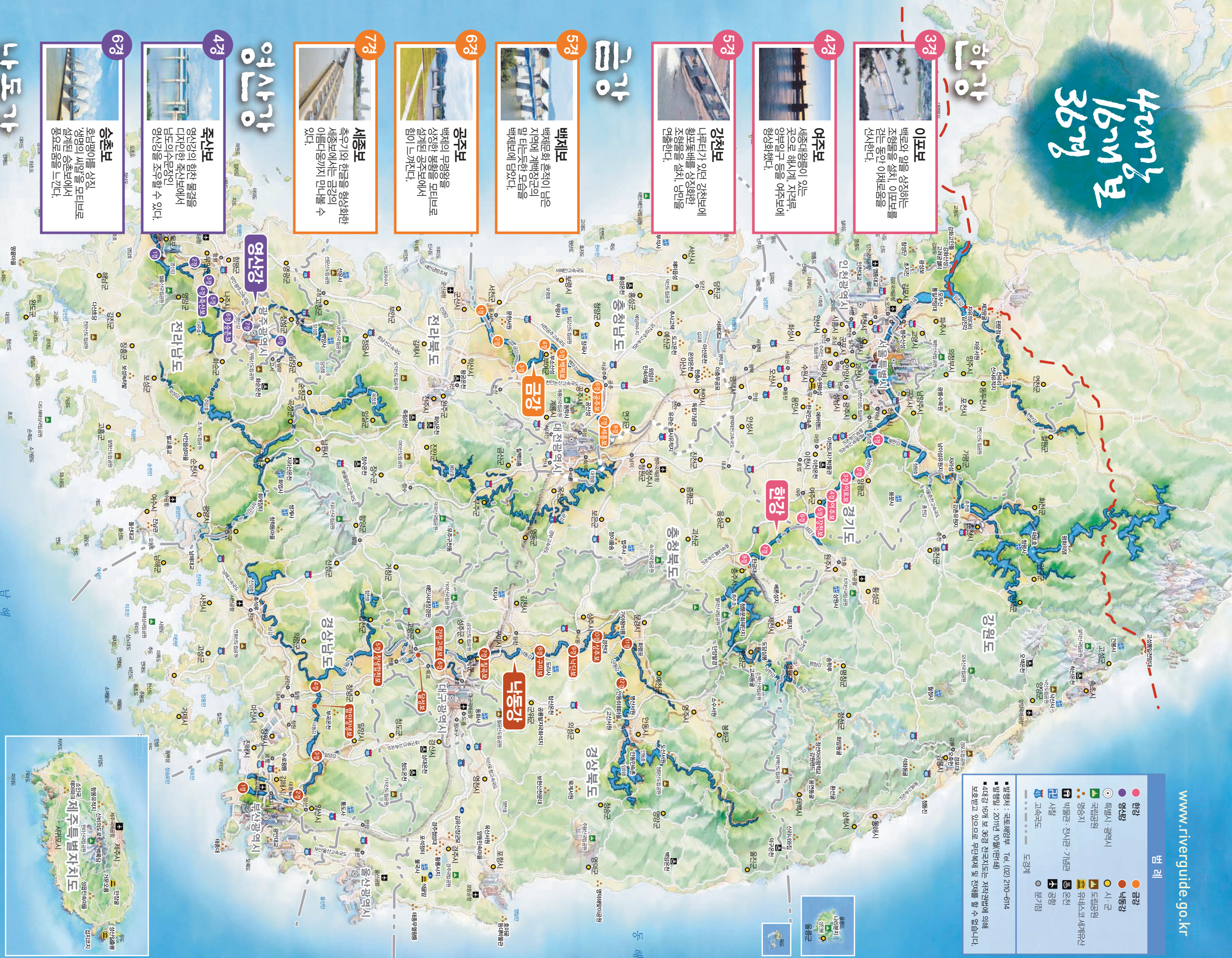
Weekly 공감
2011.10.19 No.130
gonggam.korea.kr
美의회, 韓美 FTA 비준
이제는 우리 차례다 P16~27
16개 보·36경 '새물결'…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P29~49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보는 2012 정부 예산안 P6~11
4대강 16개 보 36경
www.riverguide.go.kr
범 례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특별시 · 광역시
시 · 군
국립공원
도립공원
명승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박물관 · 전시관 · 기념관
온천
사찰
공항
고속국도
분기점
도경계
■ 발행처 : 국토해양부 Tel. (02) 2110-6114
■ 발행일 : 2011년 10월(1판1쇄)
■ 4대강 16개 보 36경 전국지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므로 무단복제 및 전재를 할 수 없습니다.
한강
3경
이포보
백로와 알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 이포보를 걷는 동안 이채로움을 선사한다.
4경
여주보
세종대왕릉이 있는 곳으로 해시계, 자격루, 앙부일구 등을 여주보에 형상화했다.
5경
강천보
나루터가 있던 강천보에 황포돛배를 상징화한 조형물을 설치, 낭만을 연출한다.
금강
5경
백제보
백제문화 흔적이 남은 지역에 계백장군의 말 타는듯한 모습을 백제보에 담았다.
6경
공주보
백제의 무령왕을 상징한 봉황을 모티브로 설계된 공주보에서 힘이 느껴진다.
7경
세종보
측우기와 한글을 형상화한 세종보에서는 금강의 아름다움까지 만나볼 수 있다.
영산강
4경
죽산보
영산강의 힘찬 물결을 디자인한 죽산보에서 남도의수문장인 영산강을 조우할 수 있다.
6경
승촌보
호남평야를 상징, '생명의 씨앗'을 모티브로 설계된 승촌보에서 풍요로움을 느낀다.
낙동강
함안창녕보
낙동강을 품은 큰고니 날개를 형상화해 가야 시대의 힘찬 기운을 느끼게 한다.
5경
창녕합천보
1억4천만년 된 우포늪의 상징인 따오기를 형상화해 유구한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달성보
항해를 상징하는 크루즈선을 형상화하고 뻗어나가는 새시대의 의미를 담았다.
6경
강정고령보
옛전함 모양과 우륵의 가야금을 상징화해 기백이 넘치는 가야를 느끼게 한다.
7경
칠곡보
가산바위 전설을 담은 철우(鐵牛)이야기를 테마로 낙동강 물길을 형상화했다.
8경
구미보
수복(壽福), 수호(守護) 상징인 거북과 용을 디자인한 구미보가 낙동강을 수호한다.
9경
낙단보
낙동강 3대 정자 중 하나인 관수루 처마를 모방한 낙단보에서 느긋함을 만끽한다.
10경
상주보
상주시 오복동 전설을 5가지 락(樂)이라는 컨셉으로 디자인해 즐거움을 마주한다.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동 해
남 해

"내 눈앞에 펼쳐진 4대강은…"

류재현
문화기획사 '상상공장' 대표

노는 것이 좋아 몇 년을 실컷 놀다 '클럽데이'를 만들었다. 한 지역의 클럽들을 뷔페처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시도에 호응이 뜨거웠다. 목마름 때문이었을 것이다. 단순히 쉬는 것 이상의 제대로 된 놀이, 삶의 재미를 추구하고 정서적으로 충만감을 주는 놀이에 대한 갈증이 새로운 놀이문화에 대한 호응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새로운 놀이문화가 절실한 곳은 공공분야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도하는 각종 지역축제와 행사들이 경쟁하듯 늘고 있으나 창의적이면서 쌈박하게 재미있는 축제는 그리 많지 않다.

얼마 전 '4대강 지역개방행사 지원자문단' 자문위원을 맡았다. 그저 그런 지역개방행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에 공감하여 참여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4대강살리기사업 현장을 가보았다. 한마디로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었다. 직접 본 한강과 금강의 수변공간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솔직히 4대강살리기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으나 눈앞에 펼쳐진 4대강은 '또 다른 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회이자 무대로 보였다.

상상해 보라. 16개 보(洑)를 무대로 한 대형 설치미술, 얕은 강물에 발 담그고 귀 기울이는 음악축제, 장난감 오리를 이용한 자선행사 '덕레이스', 보의 소수력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이용한 등(燈)축제…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은가. 특히 등축제는 강물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전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빛으로 바뀌는구나 싶어 절로 감동이 일 것이다.

4대강을 통해 우리만의 '강(江)문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 하나의 예가 '강변캠핑'이다. 요즘 뜨는 축제가 음악축제이고, 음악축제에 캠핑장을 더하면 큰 메리트가 된다. 강문화 브랜드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전거길이다. 4대강 자전거길 가운데에서도 중앙선 폐철도를 활용한 남한강 자전거길은 환상적이다. 풍광이 뛰어난 데다 길의 높낮이가 일정해 오래 자전거로 달려도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다.

4대강을 통해 우리만의 '강(江)문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 먼저 강문화 브랜드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전거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4대강의 공간은 '원 스페이스 멀티 유즈'여야 한다. 하나의 공간이 공연무대가 되고, 축제의 장도 되고, 가족놀이터도 될 수 있도록 변화무쌍해야 한다.

무엇보다 4대강의 공간은 '원 스페이스 멀티 유즈(One Space, Multi Use)'여야 한다. 하나의 공간이 공연무대가 되고, 축제의 장도 되고, 가족놀이터도 될 수 있도록 변화무쌍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기획자의 꿈을 살릴 수 있는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뒷받침이란 단순히 자금 지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4대강의 다양한 공간 활용을 규제하는 행정 규제 폐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운영, 그리고 지속적인 4대강에 대한 관심 등이다.

앞으로 4대강이 '열린 공간'이었으면 한다. 잔디 잘 꾸며놓고 '들어가지 마세요' 팻말 붙이는 식이어선 안 된다. 애초부터 내구성 있게 꾸며 사람을 들이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다들 4대강을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처음에 어떤 출발을 했든 4대강에 대해 긍정의 이어달리기를 하다 보면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이 누구나 사랑하는 명소가 되지 않겠는가.

Contents NO.130 2011.10.19 통권 231호

기획특집

물길따라 발길따라 낭만이 새록새록

문화가 흐르는 소통의 4대강이 다가옵니다.
사통팔달의 4대강 종주 자전거길, 아름다운 산책로와 수변생태공원,
여가생활을 위한 오토캠핑장과 체육시설이 4대강에 만들어져
새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줍니다.
16개 보는 커다란 물그릇이자 친환경에너지 생산의 보고이며
지역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 4대강 새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표지 이야기 이명박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은 '손님'인 대한민국과 그 대통령을 위해 정성껏 'FTA 비준'이란 상을 차려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연설을 마치자,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사진 · 뉴시스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1.10.19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12

간송미술관
54

58

| 집중기획 |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1월 3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국민의 공감대 토대로 예산 편성해야

129호 심층분석 '실생활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 확대' 기사를 읽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복지부분이 확대되면서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편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복지야 많을수록 좋지만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려면 반드시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삼가야 합니다. 마구잡이 복지를 시행하다 재정위기를 맞은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배갑순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아름다운 공존

요즘 거리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각종 프랜차이즈 전문점들로 넘쳐납니다. 이러한 문어발식 확장 때문에 영세상인과 자본력이 약한 기업은 도태되기 마련이죠. 그렇기에 128호 정책뉴스에서 다룬 '중소기업 잘 만드는 것-대기업 손 뗀다' 기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반가운 뉴스였습니다. 동반성장위의 의지처럼 앞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울려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황복희 (대전시 동구 성남동)

오토캠핑이 귀족 레저가 돼선 안 된다

단풍 시즌을 앞두고 129호 특집 오토캠핑 기사를 읽고 마음이 설렙니다. '전문가 쓴소리'에서 말한 것처럼 저렴한 비용의 친환경 캠핑장이 많아져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요즘 캠핑이 너무 화려함만 좇아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진정한 캠핑의 매력은 캠핑을 하며 느끼는 행복의 가치에 있는 것 아닐까요. 오토캠핑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대중 레저로 자리잡길 기대합니다.

김병수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동북아 사막화는 우리나라에도 영향 미쳐

중국과 몽골, 미얀마에 우리나라가 조림사업과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듣고 처음에는 왜 외국의 조림사업까지 도와주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128호 이슈 '동북아 사막화 이슈화한다' 기사를 읽고 동북아의 사막화가 결국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황사와 대기오염을 초래한다는 연관성을 깨달았습니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총회에 북한도 참석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길 바랍니다.

박수임 (대전시 서구 도안동)

정해숙 (주부·서울시 도봉구 방학3동)

"아들이 당장 캠핑 가자고 하네요"

〈위클리 공감〉이 어떤 도움을 주나요?

"사실 저 같은 주부들은 정치·경제나 문화적인 부분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놓치기 쉽잖아요. 그런데 매주 〈위클리 공감〉을 읽으면 어디 가서도 자신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더라고요. 사회생활을 하는 자녀들과 회사이야기를 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남편과 나눌 이야기도 많아지고요. 최신 영화 소식이나 문화 소식도 접할 수 있어 저는 매주 빠뜨리지 않고 구독하고 있습니다."

129호를 읽고 재밌는 일이 있었다고?

"아들이 캠핑을 즐겨서 몇 번 따라가 봤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하지만 근래에는 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가고 있었죠. 마침 129호에서 테마별로 캠핑장을 소개했기에, '이거다!'하고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이 책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미처 몰랐던 캠핑장도 많이 소개되었다며 참 좋아하네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캠핑장에 가고 싶었으면 이런 걸 찾았을까' 하며 당장 다음 주에 캠핑을 가자고 합니다. 〈위클리 공감〉 덕분에 올가을엔 자주 캠핑장에 갈 것 같아요."

〈위클리 공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이제 곧 김장철인데 올해는 또 얼마나 물가가 뛰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특별한 물가대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폐지된 후 변화된 시장 모습도 실었으면 합니다. 아직도 주부들 입장에선 어떤 것이 진짜 가격인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요즘 세종대왕을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문헌에 나와 있는 역사 이야기도 재미있겠네요."

알 림

대한민국을 사진에 담아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 사진포털 '공감포토' 오픈을 기념해 '사진으로 보는 한국 · 한국인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감포토'는 대한민국을 기록한 사진을 모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진포털이다.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추후 '공감포토' 내 온라인 화보집을 통해 언제라도 국민들이 감상할 수 있다.

공모 기간 | 10월 24일~11월 27일
응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 분야 | '더 큰 대한민국'이란 주제를 표현한 자유 사진
접수 방법 | 공감포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JPG, JPEG형식의 디지털사진, 1인 10점까지 응모 가능)
시상 내역 | 대상 1점 상장 및 상금 2백만원 등 총 42점 1천2백만원 시상

한편 같은 기간 '공감포토'의 정식 기자단인 공감사진 기자단도 선발한다. 기자단에 선정되면 삼성NX 카메라 무상 대여 및 정기 출사(연 6회), 사진 전문 교육(연 2~4회)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풍경 사진 1장, 인물 사진 1장이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해 공감포토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모집 인원 30명.

문화체육관광부 공감포토 photo.korea.kr ☎02-3704-9727

스마트한 세상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스마트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스마트기기 이용 우수 사례와 창의적인 스마트기기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스마트기기를 독특하게 활용한 사례, 감동 사연을 담은 체험수기를 올리거나 올바른 스마트기기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참가부문에 따라 개인 및 팀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수상자 발표는 12월에 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 | 11월 11일까지
참가 대상 |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를 사용하는 일반인
공모 내용 | **스마트 체험수기**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던 독창적이고 참신한 활용 사례, 스마트기기 이용을 통한 소중한 경험 및 감동 사연
스마트 아이디어 올바른 스마트기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공익 목적의 스마트한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어 및 콘텐츠 제안
참가 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 후 온라인 제출
스마트 체험수기-개인 응모, 스마트 아이디어-개인 또는 팀 응모(팀은 4인으로 제한)
시상 내역 | 대상 1편 상장 및 상금 2백만원 등 총 11작품 시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smartlife.kait.or.kr ☎02-322-7005

공감퍼즐

1					2
				3	
4			5		
		6			
7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1월 2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1.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 동의하는 절차. 한미 FTA OO안.
3. 효력이 나타남. "투수를 바꾼 게 OO했다"
4.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스승이죠.
6. 물고기를 잡는 기구. 장작 따위를 차곡차곡 쌓은 더미.
7. 4대강 16개 보 중 네티즌이 뽑은 '최고 명품보'. 학의 모양을 형상화했답니다. 한강 OO보.

세 로

1.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이나 사태가 이루어지거나 변화하기 시작함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의 해명을 듣고 OOO 오해가 풀렸다."
2. 조약, 법, 공문서 따위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 "한미 FTA가 OO되면 우리 경제 활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3. 과일이나 야채를 짜낸 즙. 사과OO.
5. 죽 둘러서 친 줄이나 금 또는 장식. 일정한 범위나 한계.
6. 한 집안에서 대를 물려 전해 오는 보배로운 물건.

<Weekly 공감> 128호(10월 5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2 복선 4 수자원 5 발치 6 우애 7 어도
세로 1 정음 2 복원 3 화기애애 4 수력발전 6 우도

<Weekly 공감> 128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수옥 · 대전시 동구 가양동
김효철 · 경기 하남시 초이동
박보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수용 ·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송교은 · 대구시 남구 이천동

첫째도 둘째도 "사회적 약자 배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에 일자리 및 건강검진·난방유 등 제공

'서민공감 12대 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대상은 '콕 집어' 서민입니다. 저소득층은 물론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두루 살폈습니다. 지난호에 이어 장애인과 농어민·소상공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6개 과제를 소개합니다. 다음호부터는 일자리, 복지, 성장 등 분야별 예산안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사회에나 사회적 약자는 존재한다.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문제는 사회가 이들을 얼마나 잘 보듬고 있느냐이다. 정책적으로 이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해야 건강한 사회를 이어갈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2012년 예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복지 예산이 올해에 비해 6.4퍼센트 증가했다. 특히 '서민공감 12대 과제'는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⑦ 장애인복지 일자리 근로조건 개선

전라남도 고흥에 사는 김철민씨(가명)는 뇌병변 1급장애인이다. 뇌병변장애는 뇌손상,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이상에 의해 신체적 활동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후천적인 발병도 있지만 김씨의 경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흔히 말하는 뇌성마비가 그의 병 이름이다.

거동이 불편한 김씨는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러자니 김씨의 마음 한구석엔 늘 미안함이 자리했다. 남에게 신세를 져야만 하는 자신의 상황이 원망스러웠다. 남들처럼 직장을 가진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를 고용하겠다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김씨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따스한 손길이 생겼다. 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정부가 2007년 도입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를 높이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와 복지를 연계해 장애인들이 궁극적으로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일자리의 종류는 환경도우미, 주차단속 보조요원, 관공서 청소도우미 등 다양하다.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적합한 일자리가 정해진다. 정부는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사업 참여 대상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다.

일자리가 생긴 김씨는 사는 맛이 절로 났다. 평생 처음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족들도 그만큼이나 기뻐했다. 김씨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다. 자신도 남들처럼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욕심도 생겼다. 더 많이 일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현실로 이룰 수는 없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근로시간이 월 44시간으로 정해진 아르바이트형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보수도 월 2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오가며 교통비를 제하면 실제 남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2012년부터는 김씨의 아쉬움이 다소나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근로시간이 월 44시간에서 56시간으로 12시간 증가한다.

사회참여의 문이 그만큼 넓어진 셈이다. 보수도 월 20만원에서 25만9천원으로 불어나 교통비 등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게 됐

일러스트 · 유재일

조선DB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의 판매액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의 판매액을 늘려 전통시장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 광장시장.

다. 언젠가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직장을 가지게 될 날을 김씨는 꿈꾸고 있다.

❽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서울에 사는 최순자씨는 지난해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딸이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진단이었다. 남들과 조금 다를 뿐이며 시간이 지나면 다른 아이와 같아질 것이란 믿음이 산산이 부서졌다. 여전히 해맑은 표정으로 자신의 품을 파고드는 아이를 보고 있자면 가엽고 안타까워 눈물이 솟았다.

하지만 언제까지 낙담하고 슬퍼할 수만은 없었다. 딸을 위해 뭔가를 해야 했다. 하기에 따라 장애 정도가 개선될 수 있다는 말이 힘이 됐다. 최씨는 우선 아이의 장애를 정부에 등록하고 집 근처에 있는 복지관을 찾아 재활프로그램 참여도 신청했다.

딸을 위해 하노라고 하고 있지만 최씨는 불안하다. 딸이 잘못되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딸의 장애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뿐이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랐다. 책도 읽고 인터넷도 뒤져 정보를 모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없다.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2012년부터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교육이 실시된다. 발달장애인의 가장 큰 조력자인 부모에게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생애주기별 양육방법, 성인기 대비 계획,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대비법, 각종 복지지원 정보를 교육한다. 부모상담을 통해 장애인 자녀를 키우면서 생길 수 있는 부모들의 정신적·정서적 문제에도 대응한다.

이번 정책의 대상은 지적 자폐성 장애인(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아동의 부모이며 사업 첫해인 2012년 지원 규모는 7백명이다.

❾ 농지연금 수급인원 4배 확대

경기도 포천에서 농사를 짓는 김영철씨는 최근 몇 년 사이 힘이 부쩍 떨어진 느낌이다. 예전 같으면 거뜬히 해냈던 일도 힘에 벅찰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나이 예순다섯이 넘어서면서 시작된 변화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농사일이 힘들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만둘 수도 없었다. 먹고 살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일러스트·유재일

김씨가 경작하는 땅은 논 1만제곱미터와 밭 3천3백제곱미터가량이다.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김씨와 아내가 살기에는 큰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농사를 그만두면 살 길이 막연하다.

김씨처럼 평생 농사를 지었지만 노령으로 더 이상 농사를 이어가기 어려운 농민들이 적지 않다.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 현실을 생각해 보면 그 수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농지연금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농지연금은 고령의 농민들이 노동고와 생활고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수령을 종신으로 설정하면 몇 년이 될지라도 사망 시까지 최초 계약된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총액이 담보인 농지보다 많아지더라도 추가 부담은 없다. 담보 설정이 된 농지라도 농업을 이어갈 수도 있고 제3자에게 임대를 놓을 수도 있다. 연금도 받고 기존의 소득도 유지할 수 있어 생활자금이 그만큼 넉넉해질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

정부는 농지연금의 수급인원을 올해 5백명에서 2천89명으로 약 4배 확대할 계획이다.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보유 토지는 3만제곱미터 이하, 영농 경력 5년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문의 전화 ☎1577-7770)

⑩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편의성 증대

지난 추석 전통시장 상인들은 함박웃음을 지었다.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매출이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경덕 사장(가명)도 온누리상품권 덕을 톡톡히 봤다고 말한다. 추석에 소 20마리를 잡았는데 전량 판매됐다. 판매금액 중 10퍼센트는 온누리상품권이었다. 온누리상품권이 매출을 10퍼센트나 끌어올린 셈이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특정 백화점의 상품권처럼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전용으로 발행된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명절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이 아니라 온누리상품권을 주면 그만큼 전통시장의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상품권 금액의 3퍼센트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익이다.

도입 2년째인 온누리상품권은 특히 지난 추석 때에 위력을 발휘했다.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는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에 따르면 추석 기간에 판매액이 1천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추석에 비해 4배나 불어난 수치다. 그만큼 대형 할인점에 밀려 시름하던 전통시장 상인들의 살림살이가 넉넉해졌다는 의미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을 한층 활성화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1천3백억원이던 유통규모를 2천억원으로 늘린다.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높인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나들가게(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낙후한 시설을 개량한 현대식 소형 슈퍼)와 골목슈퍼로 사용범위를 확대한다.

상품권 종류도 다양화한다. 현재는 5천원권과 1만원권뿐이어서 고액 결제를 하는 데 불편이 있다. 내년부터는 5만원권과 10만원권도 발행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은 기업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모두 9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⑪ 기초생활수급자에 건강검진 실시

서울시 종로구에 사는 김갑수씨(가명)는 최근 당뇨 진단을 받았다. 김씨가 병원을 찾은 것은 특별히 불편한 곳이 있어서가 아니다. 건강검진을 위해서였다. 흔하디 흔한 것이 건강검진이지만 김씨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에 다름 아니었다. 의료급여를 받는 형편에 건강검진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 약자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제도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건강보험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가 받는 건강검진은 받을 수 없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보다 병이 진행된 후에야 대응하는 상황인 것이다.

2012년부터는 의료급여 수급자들도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망률이 높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건강검진 대상은 만 19~64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검진을 받을 수 있다.

⑫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세대에 난방유 지원

올해 열 살인 성환이는 겨울이 오는 게 두렵다. 지난겨울의 기억 때문이다. 성환이의 아버지는 이혼을 한 후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용직이다보니 소득이 적은 데다 불규칙하다. 특히 겨울엔 일이 더 줄어들어 살림이 더욱 팍팍해진다. 자연히 허리띠를 있는 대로 졸라매게 된다.

지난겨울 성환이네 집은 보일러를 거의 돌리지 않았다. 기름값이 올라 기름보일러를 돌릴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가스레인지에 물을 데워 세수만 했고 바닥은 전기매트로 겨우 냉기만 가시고 잠을 청해야 했다. 방안의 공기는 늘 차가웠고 편안한 잠은 남의 일로만 여겨졌다.

2012년엔 성환이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한부모가정과 소년소녀세대에 정부가 2백리터의 난방유를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에너지재단이 자체적으로 민간모금 등을 통해 차상위계층 이하 한부모가정에 제공하던 것을 국가 예산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종전과 같은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

글 · 변형주 기자

일러스트 · 유재일

조선DB

다문화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정에 따뜻한 손길을

한국어 통번역 · 자녀 양육지원 확대

다문화가정은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가정은 총 38만7천가구로 전체의 2.2퍼센트에 이른다. 가구원은 93만9천명이다. 다문화가정 1백만 시대가 바짝 다가온 셈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국제결혼은 3만4천여 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문제는 이혼도 그만큼 증가했다는 점이다. 2004년 3천3백건에서 2010년 1만1천2백건으로 3.4배나 불어났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결손자녀는 5백여 명에서 1천5백여 명으로 3배가량 늘었다.

불행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것은 상당수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데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적잖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서민'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이 건강하게 가정을 꾸려가고 사회에 융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부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사회에 좀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먼저 통번역과 양육지원을 강화한다.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번역 지원사를 2백10명에서 2백82명으로 늘린다. 이들은 전국 2백개의 다문화가족센터에 배치돼 행정과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생활지원도 확대한다. 생활지원서비스센터를 80개에서 2백개로 늘린다.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해 자녀의 알림장과 준비물을 챙겨주는 등 가정생활과 자녀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한국어에 서툰 데다 우리의 교육환경에 낯선 외국인 어머니들의 고충을 풀어주기 위한 조치다.

한국어교육과 상담의 질도 높인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표준하고 귀화 심사할 때 혜택을 부여한다. 한국어 교육은 1~2단계로 재정비하고 단계별로 교육 시간을 80시간에서 1백시간으로 늘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4백53명에서 6백53명으로 늘려 서비스의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도 개선해 나간다. 다문화가정과 자주 접촉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정을 좀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는 등 투자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당정협의서 일자리 예산 집중 반영"

조선DB

"글로벌 경제위기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위기에 대비하는 여력을 확보하고자 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복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투자에 대한 재원배분도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정부의 2012년 예산안에 높은 점수를 줬다. 경제성장의 혜택을 서민들도 누리도록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했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 의원은 강조했다.

2012년 예산안은 '일자리 예산'을 캐치프레이즈로 걸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한나라당은 수차례의 당정협의와 실무협의를 통해 '일자리가 복지다'는 관점으로 일자리 예산을 집중 반영했습니다. 4대 핵심일자리 예산을 필두로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청년 전용 창업자금 등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해야 지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지원을 통한 직접일자리 예산뿐 아니라 간접적인 일자리 효과가 있는 미래성장동력과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예산이 소홀히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재정이 조화롭게 배분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할 계획입니다."

서민복지 예산은 어떻습니까.

"한나라당의 민생예산은 '국민공감 민생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복지를 발굴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생애단계별 복지예산 편성에 주목해 전 세대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 이번 서민복지 예산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균형재정 조기달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 악화 등으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최대한 낮게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 2013년의 재정수지는 당초 6조2천억원 적자에서 2천억원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별히 아쉬운 부문도 있으신가요.

"당정협의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편성 원칙으로 인해 반영되지 못했거나 미진하게 반영된 서민, 일자리 예산 등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부분은 물론 보육, 일자리, 어르신 등 7대 분야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 보육, 일자리, 어르신 등 7대 분야로 나누어 국회증액에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 심의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한나라당의 심의 원칙은 정부의 재정규모를 유지하거나 순삭감해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정부의 예산편성에서 집행이 부진하거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야당보다 무섭게 지적하고 삭감할 것이며, 국민적 시각에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의 예산은 늘릴 것입니다." G

강기정 민주당 의원

"위기극복 예산으로 전면 수정해야"

"국내외 경제연구소들이 내년도 성장률을 3퍼센트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오직 정부만 4.5퍼센트 성장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위기극복'에 두었습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2012년 예산안이 잘못된 경제전망 아래 편성돼 문제 소지가 적잖다고 꼬집었다. 같은 이유로 2013년 균형재정 조기달성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세입 기반도 약화됐기 때문이란 이유다. 법인세 감세 철회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균형재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 의원은 강조했다. 일자리와 복지 부문에 대한 예산 확충도 강하게 주문했다.

2012년 예산안은 '일자리 예산'을 캐치프레이즈로 걸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자리 예산으로 불리기엔 실망스러운 예산안입니다. 일단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6.8퍼센트 증가에 그칩니다. 특히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창출 예산은 5.8퍼센트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수도 2만개 증가에 머뭅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 우려로 경기침체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시장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9년에는 80만개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위축에 따른 고용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이에 비해 2만개 증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정부가 4대 핵심일자리로 청년창업 지원, 글로벌 일자리 확충을 얘기하지만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내년도에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서민복지 예산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만큼 복지예산은 증가율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복지예산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올해 수준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오히려 감소하는 기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조선DB

이번 예산 심의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민의를 반영한 '민생·일자리 예산, 서민희망 예산, 재정건전성 회복 예산, 지방을 살리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5개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민생·일자리 예산을 확대할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예산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재정건전성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방재정 확대와 예산절감의 원칙도 지켜나갈 것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곧 있을 텐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내년도 예산은 비상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위기극복 예산으로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정부의 예산안대로 통과되면 내년 초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지난 2009년도 정부예산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당시 예산안은 국회제출 이후 수정예산안을 추가로 편성하여 심사하였음에도 예산이 통과된 지 서너 달이 지나지 않아 30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을 편성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합심해야 할 것입니다." G

글 · 변형주 기자

국회의사당 본관과 정론관 입구 안쪽에서 빈 벽을 활용해 열리고 있는 삐삐프로젝트. 촉망받는 젊은 작가 16명의 작품을 시즌별로 4작품씩 소개하고 있다.

어! 국회가 달라졌어요

‘의사당에 문화를 입히자’ 작가 16명 참여 ‘프로젝트P’ 진행

국정에 어깨가 무거운 의원도, 엄숙하고 경직된 분위기로 지나다니던 직원도, 정신없이 바쁜 출입기자들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들어서 잠시 걸음을 멈춘다. 강렬한 색감의 그림에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고, 그림 속 익살스러운 인물들의 표정에 피식 웃기도 한다. 대한민국 국회에 새 문화 바람을 일으키는 ‘프로젝트P(일명 삐삐프로젝트)’의 풍경이다.

“브리핑 때문에 현재 그림이 전시된 정론관(출입기자실)에 자주 오가곤 하는데 바쁜 업무 때문에 사실 그전(삐삐프로젝트 진행전)에는 그림이 있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눈에 그림이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건조하고 삭막하게만 느껴졌던 곳이었는데 벽에 걸렸던 아이 그림(시즌1 이상선 작 ‘兒孩-날으는 들꽃’)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함께 그림을 감상하던 기혼 여직원들은 ‘집에 있는 아이가 생각난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 순간만큼은 업무를 잠시 잊고 평소 인사만 나누던 보좌관들과도 그림을 보며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됐습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님은 업무 중 머리가 복잡할 땐 일부러 그림을 감상하러 내려가기도 했어요.” 전현희 의원 비서 조아라(30)씨의 말이다. 그는 “그림 하나로 공감대를 형성해 좋았다”면서 “다음엔 어떤 작품이 전시될지 벌써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국회 방문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의회방문회 소속 김태일(38)씨도 “독특한 작품들이 많아서 보는 재미가 있고 갤러리나 전시회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작품들을 근무하면서 볼 수 있어 좋다”면서 “무엇보다 국회 방문객들이 국회본청에 들어서 그림부터 감상하는 것을 보니 그냥 지나치던 때와는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다”고 전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입구와 정론관 입구 안쪽에선 문화예술 기획 ‘삐삐(pP)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시즌별로 테마를 달리

해 진행하는 '삐삐프로젝트'는 지난 3월 9일부터 시작해 어느덧 세 번째 시즌을 맞고 있다. 내년 3월 13일까지 1년에 걸쳐 시즌별 '초심' '도시산책' '투덜투덜' '마음에 새기다' 등 4개의 주제 아래 작가 16명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회다. 현재는 양은혜, 장석준, 임수식, 황은화 작가의 작품 등이 전시돼 있다.

삐삐프로젝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간인 대한민국 국회를 국민에게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인 동시에 꼭 가보고 싶은 장소로 만들어보자'는 소박한 애국심에서 비롯됐다. 아이디어는 재단법인 예올 전 사무국장 이정화(50)씨로부터 나왔다.

"관광명소인 유럽 국가 의사당처럼 꾸며보자"

"영국 의사당 시계탑 빅벤은 영국 역사와 전통의 상징으로 영국 여행의 필수코스입니다. 노만 포스터 경의 투명한 돔 건축으로 유명한 독일 의사당은 독일 문화관광의 명소이고요. 미국 국회도서관은 세계 최대의 도서관으로 연구기관뿐 아니라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문화기관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이렇다 할 만한 상징이 없어 안타까웠죠. 그래서 우리 국회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장소로 꾸며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곳곳이 갤러리로 변하고 있는데 정작 문화강국을 주창하는 국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어쩌면 결코 소박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바람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미경(42)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에게 전달됐다.

"우연히 저녁식사를 하며 '프로젝트의 하나로 먼저 국회의 빈 벽에 촉망받는 젊은 작가들의 그림을 전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하니 서 위원이 '좋은 생각'이라며 바로 국회사무총장께 제안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국회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생각해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었죠."

하지만 프로젝트 제안서를 검토한 권 사무총장은 망설임 없이 "삐삐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사무총장은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발상의 전환이 마음에 들었다"며 "한편으로는 국회도 두드리면 열리는 곳이라는 것, 그리 벽이 높지 않다는 것을 프로젝트 기획자들과 젊은 예술가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3월 9일 국회 본관 입구 좌우, 정론실 좌우측 빈 벽엔 이전 국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식과 주제를 담은 그림들이 걸리기 시작했다.

시즌Ⅲ로 작품을 교체하던 지난 10월 12일, 오가며 작품을 감상

시즌 Ⅰ | 초심

이상선 작 〈兒孩(호아저씨)-날으는 들꽃〉

채성필 작 〈원시향〉

최정미 작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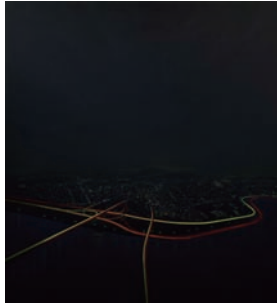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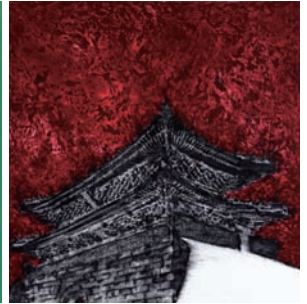
이경애 작 〈수면을 채색하다〉

시즌 Ⅱ | 도시산책

서윤희 작 〈기억의 간격–夏Ⅲ〉

한조영 작 〈Darkview–Seoul〉

송명진 작 〈Into the field〉

정진용 작 〈Burning Gate No.1〉

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재미있었다. 몇몇 여직원들은 빨간 원색 바탕에 빈 의자를 그린 황은화 작가의 작품을 보며 "빈 의자에 앉아서 쉬고 싶다"며 푸념했다.

어떤 직원들은 '휴지를 둘둘 말아 그렇게 눈에 붙이고 다니면 좋으냐'라는 제목이 붙은 양은혜 작가의 작품을 보곤 웃음을 참지 못했다. 큐레이팅을 담당하는 문화예술기획자 이소연(45)씨는 "이제는 작품 교체하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설명한다.

"처음 기획의도는 국회의 빈 공간에 예술옷을 입혀보자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문화의 힘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는 게 삐삐프로젝트 참여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국회가 대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

무엇보다 삐삐프로젝트가 빛을 발하는 건 기획자, 큐레이터, 16명의 참여 작가들 모두 도네이션(기부) 개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한 점을 보면서 감동하고, 잠깐이나마 정쟁에서 시선을 돌려 쉬어갈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갤러리가 아닌 열린 공간에서의 전시는 자칫 작가들에게는 모험일 수 있지만, 오히려 '국회 전시'라는 이유 때문에 전시를 결정했다는 작가도 있다. 장석준(29) 작가는 "전시를 목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걸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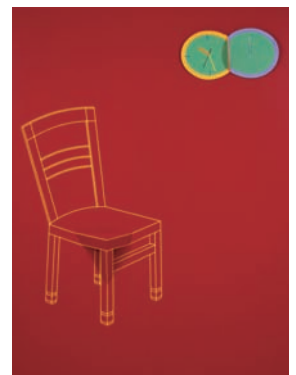
시즌Ⅱ에 참여한 서윤희(43) 작가는 "운반에서부터 그림을 걸기까지 갤러리에서 전시하는 것과는 진행부터가 달랐지만, 기획의도가 좋았고 작가로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전시라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즌Ⅰ에 참여한 채성필(39) 작가는 "국회라는 가깝고도 먼(?) 장소에서의 전시가 일반인들과 소통하는 다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참여하게 됐다"면서 "국회라는 공간이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현재 전시된 작품들은 방문증을 받은 국회방문객들이나 국회 직원들에 한해 관람할 수 있다.

서미경 수석전문위원은 "프로젝트P는 대한민국 국회가 문화예술의 후원자가 된 첫번째 프로젝트"라면서 "앞으로 전시공간이 넓어져 일반 국민도 '국회에 전시를 보러 간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프로젝트가 국회뿐 아니라 다른 공공영역으로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G

글·박근희 기자

황은화 작 〈Another View–공간〉

시즌 Ⅲ | 투덜투덜

장석준 작 〈하늘〉

임수식 작 〈책가도039P〉

양은혜 작 〈휴지를 둘둘 말아 그렇게 눈에 붙이고 다니면 좋으냐〉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인터뷰

"엄숙한 국회에 쉼표 같은 문화 심었죠"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은 '프로젝트P'를 진행하는 데 있어 교두보 역할을 했다. 국회사무총장으로 재임한 지 1년4개월째인 권 사무총장에게 이번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인지 물었다.

'프로젝트P'를 수락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우선 기획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국회에도 5백점이 넘는 미술품이 소장돼 있지만, 젊은 미술가들의 작품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회의사당이 갤러리가 돼 엄숙주의를 깨고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한다는 기획 의도가 좋았습니다. "

평소 국회 문화나 분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아무래도 의회는 격식을 갖춰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만큼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의회의 도서관 등에 가면 문화 관련 전시나 행사가 빈번하게 진행됩니다. 참 부러운 면이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시는 일하는 국회의원이나 직원뿐 아니라 내방객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님이 생각하는 '문화'란 무엇인지요.

"제 고향인 안동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입니다. 박물관 소장품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문화유적이 가장 많은 곳에서 나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문화가 체화되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도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는 도시브랜드를 주창했으며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만큼 문화에 대한 꿈이 큽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인이 되지 않았다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물하는 문화계에서 일하고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 등 '국회'라는 특수성상 집행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국회에도 미술품을 담당하는 관리과에 소정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봐왔던 그림들의 분위기와는 좀 다른 젊은 작가들의 발랄하고 도발적인 작품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국회의사당의 입구 전면에 전시되다 보니, 국회라는 공간과 혹시 어울리지 않는 점은 없을까 하는 걱정은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신선하고 좋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허재성 기자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국회의원과 직원들, 내방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프로젝트P'를 진행하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요.

"'열린국회, 현장국회, 소통국회'를 목표로 사무총장 역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국회를 찾는 학생, 국민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 역시 작품 앞을 지날 때 잠시 발걸음을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머리가 복잡할 때 그렇게나마 하나의 쉼표를 선물받는 기분입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했거나 앞으로 참여할 16명의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지요.

"문화는 많은 이들의 삶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문화의 힘은 위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여하신 작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문화의 색깔로 국민 삶을 위로할 수 있는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사무총장으로서 문화인들의 활동을 성원해 나가겠습니다."

글 · 박근희 기자

미 의회는 일자리 창출과 수출증대 효과 등을 이유로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미시건주의 포드자동차 공장.

공은 이제 우리 손에 넘어왔다

美 언론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무역협정"

미국 의회가 지난 13일(한국시각)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 속에서도 무난히 비준됐다. 양국 간의 협상안이 타결된 지 4년 3개월 만의 일이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한 열의를 보이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로 넘어왔다. 경제계는 한·미 FTA가 미국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속한 비준을 주문하고 있다.

"초당적 지지와 함께 한 오늘밤의 투표는 자랑스러운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제품의 수출을 상당히 신장시킬 것입니다. 보수가 좋은 수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노동권과 환경,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미국 의회 통과를 환영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에도 야당인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킨 정치력을 발휘한 데다 향후 발생할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이번 비준안 통과를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미국 하원은 지난 12일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2백78표, 반대 1백51표였다. 민주당 의원 1백30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꺾기엔 역부족이었다. 반대론자들은 한·미 FTA는 미국 경제 발전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45만개의 신규 일자리와 수출증대 효과를 주장하는 찬성파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미국 언론들도 한·미 FTA의 비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워싱턴포스트지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가장 중요한 무역협정"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정치적인 의미에 주목했다. 국내적으로는 '초당적 합의'이고 국제적으로는 한국과 우방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발판이라는 설명이었다.

전경련 등 경제계, 우리 측 조속한 비준 촉구

미 의회가 한·미 FTA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비준하자 국내 경제계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알렸다. 한·미 FTA가 미국은 물론 한국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한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가 참여하는 FTA민간대책위원회는 "단일국가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조선DB

의 FTA는 수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한다"며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 시장에 또 하나의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확고히 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의 국책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는 장기적으로 GDP를 5.6퍼센트 향상시키고 35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제조업의 수혜가 기대된다. 자동차와 전기전자, 화학 등을 필두로 수출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15년간 대미 연평균 수출액이 12억9천만달러 증가하고 무역흑자도 5억7천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생산도 연평균 8조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국책연구원들은 분석했다.

전경련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FTA의 우리 측 비준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FTA로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미국과의 FTA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만큼 국익을 위한 국회의 결단"을 요청했다.

세제 지원 등 농어업 피해업종 보완대책 강화

제조업의 수출이 증대하고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등 한·미 FTA는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업종이 수혜를 입는 것은 아니다.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 등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수입이 늘어 국내 생산과 해당 종사자들의 소득은 감소하게 된다. 특히 축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연평균 5천억원 가까이 생산이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는 피해업종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놓았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업종을 구제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외부의 파도에 맞설 체력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07년 정부는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FTA 종합대책 성격의 'FTA 국내보완대책'을 발표,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 8월에는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추가로 수립했다.

먼저 재정지원을 21조1천억원에서 22조1천억원으로 1조원 증액했다. 축사와 과수, 원예 시설 등 수요가 많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예산을 2조2천억원에서 4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또 가격이 시장 평균가격의 80퍼센트 밑으로 떨어져야 지급하던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기준을 85퍼센트로 완화해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세제 지원도 실시한다. 농어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농·어가의 신용보증을 10억원 한도에서 30억원으로 늘렸다. 또 임차농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품목의 범위를 넓혔다. 내년 6월까지였던 면세유 공급 기한은 2015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과세 과세 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함에 따라 이제 공은 우리에게로 넘어왔다. 한·미 FTA가 발효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국회의 판단에 맡겨진 셈이다. 지난해 12월의 재협상에 이어 추가협상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 유리하도록 협정문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조속한 시일 안에 비준이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G

글·변형주 기자

한·미 FTA 중소기업 10大 수출유망상품

품목명	현행 관세(%)	FTA발효 후 관세	유망사유
브레이크 패드	2.5	즉시 철폐	• 중국산 브레이크 패드 제품에 실망한 바이어들의 한국산 관심 증대 • 한국산 품질은 이미 인정받고 있어, 가격 경쟁력까지 제고된다면 수출여건 대폭 개선 전망
냉간단조부품(엔진블록, 피스톤 등)	0~2.5	즉시 철폐	• 관세 철폐로 중국산 대비 가격 열위는 보강되고, 일본산 대비 가격 우위는 강화될 전망
볼트·너트	5.7~12.5	즉시 철폐	• 가격 경쟁이 치열한 품목으로 고관세 철폐에 힘입어 가격 경쟁력 제고 폭이 클 전망
폴리에스터 섬유사	4.3	즉시 철폐	• 면화가격 급등 및 생산원가 절감 위해 폴리에스터 혼방비율이 확대되면서 현지수요급증·한국은 수입시장 점유율 2위 국가로 바이어 인지도가 높아, 관세 철폐 시, 수출 확대여력 다분
카매트	6.7	즉시철폐	• 관세 철폐로 고급차량용 카매트 가격경쟁력 제고효과 기대·한국산 품질에 대한 인지도 상승세
볼베어링	9.0	10년 균등	• 10년 균등 철폐지만, 관세율이 높아 3년 내 2.7% 관세 철폐·가격 경쟁이 치열해 관세 철폐로, 한국산 수출 확대 기대
펌프	2.5	즉시 철폐	• 경쟁제품 간 품질이 대동소이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한데, 관세 철폐 시 한국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
터치스크린 모니터	2.7	즉시 철폐	• 비용절감을 위한 셀프 계산대 및 키오스크 설치 증가로 수요 증가·중국산과 멕시코산보다는 일본산 대비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
에폭시수지	6.1	즉시 철폐	• 금년 고기능성 에폭시 합성수지 수요는 전년 대비 9% 증가 예상·고관세 즉시 철폐
리튬 1차전지	2.7	즉시 철폐	• 미 국방부에서 친환경 휴대용 전지에 대한 수요(GPS, 전투용 라디오, 어뢰)가 급증·미국 내 생산능력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료 대한무역진흥공사

국내 일자리 최대 35만개 새로 생긴다

관세 철폐로 일본·중국 등 경쟁국보다 가격경쟁력 높아져

미국은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이다. 2010년 1조9천7백억달러를 수입해 2위인 중국(1조3천9백억달러)을 크게 앞질렀다. 한·미 FTA는 미국시장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역조건이 경쟁국보다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서비스업 등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이대로 가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에 뒤처질 것이므로 일본 정부는 위기감을 갖고 한국의 정치 결단을 배워 FTA 협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7일자 일본 산케이신문의 보도 내용이다. 며칠 전인 12월 3일에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미 FTA 추가협상에 타결하자 나온 기사였다.

일본 언론들은 그러잖아도 한국 기업의 발전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교역 조건마저 한국에 유리해지면 일본 기업들이 설 자리가 좁아질 것이라 우려했다. 한·미 FTA의 경제적인 파급력을 경쟁국인 일본이 인정한 셈이다.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수입시장인 미국에서 우리 기업이 좀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이나 중국 등 경쟁국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 결과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고용이 느는 효과가 기대된다.

외국인 직접투자 연평균 23억~32억달러 증가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편익을 바라볼 수 있다.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들의 가격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좀더 다양한 미국 제품들이 들어와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소비자후생이 커진다는 얘기다.

조선DB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업종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사진은 고급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대구시의 한 섬유업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자료 2011년 8월, 10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분석

국내총생산(GDP)
5.66% 증가

일자리
35만개 증가

소비자 후생
321.9억달러 확대

대 세계 무역수지
27.7억달러 확대
(향후 15년간 연평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의 국책연구원들이 지난해 8월 공동 발표한 한·미 FTA 경제효과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의 GDP는 장기적으로 5.66퍼센트, 단기적으로는 0.02퍼센트 증가한다.

하지만 자본축적과 생산성이 제자리걸음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장기적인 GDP 증대는 0.48퍼센트에 머물 것이란 예상이다. 후생도 마찬가지다. 최선의 경우 3백21억달러 향상되지만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25억5천만달러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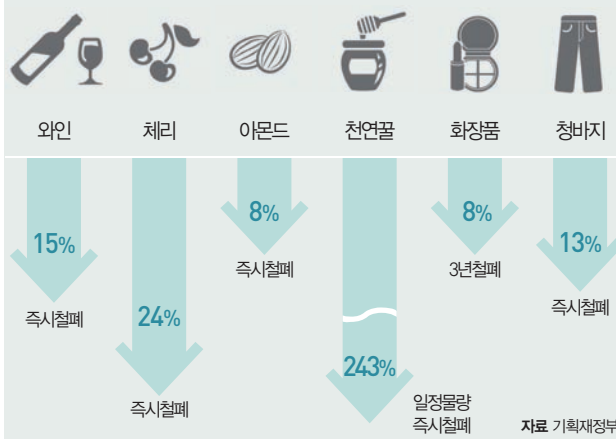
고용효과 역시 FTA 발효 후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단기적으로 고용은 4천3백명가량 증가하지만 생산성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약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난다. 고용창출은 특히 서비스업에서 활발할 것으로 예상됐다. 장기적으로 약 27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란 예측이다.

자동차 등 제조업 약진… 서비스업은 희비 엇갈려

교역량과 무역흑자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미 수출은 발효 후 15년 동안 연평균 12억9천만달러, 수입은 11억5천만 달러 늘어나 1억4천만달러가량 흑자가 확대된다. 제조업은 연평균 5억7천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이 기대되지만 농수산업에서는 4억3천만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의 확대도 바라볼 수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23억~32억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10개 국책연구원은 분석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관세장벽이 사라지면서 대 세계 수출이 연평균 31억7천만달러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수입 증가액은 1억4천만달러에 그쳐 무역흑자가 약 30억3천만달러 확대된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전기전자, 화학, 일반기계 등의 약진이 기대된다. 수입보다 수출이 큰 폭으로 증대되면서 자동차의 무역흑자는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11억3천만달러, 전기전자는 8억5천만달러, 화학은 2억9천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생산유발효과도 크다. 발효 후 15년간 자동차가 연평균 2조9천억원, 전기전자 2조원, 화학이 9천억원 정도 생산이 증대된다.

농업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수입이 증가하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결과가 예상된다. 농업의 생산 감소액은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8천1백50억원이다. 특히 축산업의 위축이 걱정이다. 연평균 4천8백66억원이나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수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미 수출액이 연평균 78만달러가량 늘어나지만 수입증가액은 1천1백78만달러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미국은 세계 최대의 명태 생산국이어서 관련 원양어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원양어업은 연평균 1백54억원가량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은 희비가 엇갈린다. 방송서비스의 경우 국산영화와 애니메이션의 쿼터가 각각 5퍼센트포인트 감소하게 돼 연평균 51억9천만원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시장은 생산과 소득이 모두 증가한다. 외국인 지분투자를 확대한 데 따른 결과다. 통신서비스 역시 외국인 진입이 확대돼 생산은 연평균 7백10억원, 소득은 3백10억원 확대된다. G

글·변형주 기자

한·칠레 FTA 발효 후 TV, 무선통신기기 등 한국 전자제품 수출이 크게 늘었다. 사진은 칠레 산티아고 시내의 한 백화점에 마련된 한국 기업 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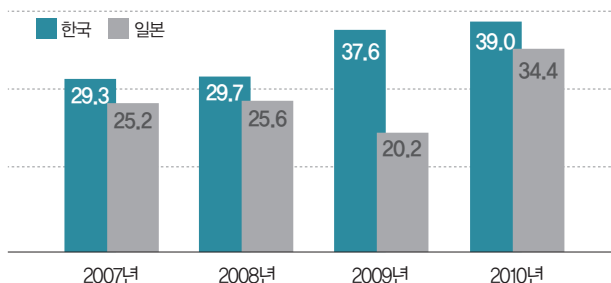
넓어진 경제영토… 부작용은 '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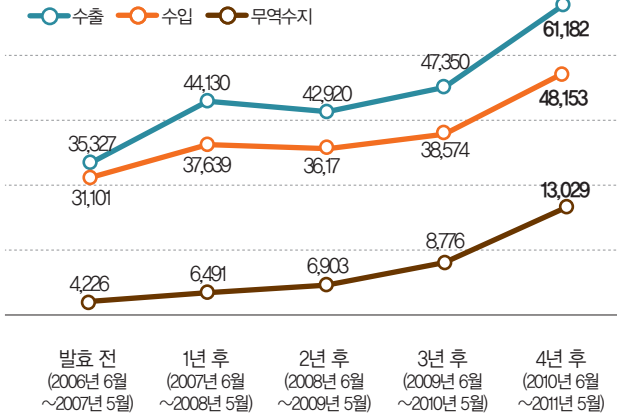
칠레·아세안 등과 교역량 늘고 무역수지 개선… 인적 교류도 활발

현재 우리나라 경제영토는 GDP 기준 전 세계의 61퍼센트이다. 세계 3위의 자유무역협정 선진국이다. 경제영토가 넓어지면서 교역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려했던 부작용보다는 기대했던 경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칠레, 아세안(ASEAN), 싱가포르, 인도 등 주요 FTA 체결국과의 경제효과를 살펴본다.

칠레와의 FTA가 발효된 2004년 당시 우리나라의 포도농가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칠레의 포도가 시장을 장악해 버릴 것이란 우려였다. 전국농민총연맹회와 한국포도회 등은 칠레산 포도에 대한 계절관세가 10년간에 걸쳐 철폐되면 포도농가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의 칠레 자동차시장 점유율 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단위 %

하지만 실제는 전혀 달랐다. 국내 포도재배 면적은 2003년 1천6백41헥타르에서 2010년 2천2백42헥타르로 오히려 넓어졌다. 같은 기간 포도 가격도 상승했다. 1킬로그램에 6천4백86원이던 것이 9천8백70원으로 52퍼센트가량 올랐다. 칠레산 포도가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1~4월에 집중적으로 수입돼 국내산 포도를 대체하지 않았다. 게다가 국내 포도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이 겹쳐지면서 포도농가의 소득이 오히려 높아진 것이다.

對싱가포르 무역흑자 2.4배 확대

FTA는 매번 기대와 우려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발효됐다. 하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부작용보다는 선작용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부터가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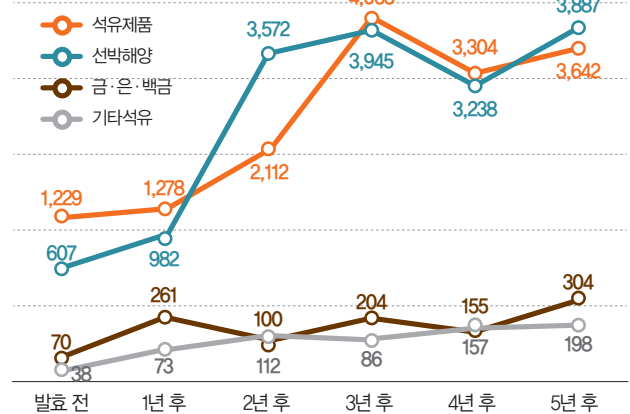
2004년 발효된 후 7년 동안 양국의 교역량은 3배 가까이 불어났다. 한·칠레 FTA의 생산유발효과는 2003년 1억3천만달러에서 6억1천만달러로 3백69퍼센트, 고용유발효과는 6천명에서 2만2천명으로 2백66퍼센트 높아졌다.

특히 수출이 4백62퍼센트나 증가했다.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컬러TV 등 제조업 품목이 효자품목이었다. 그 결과 전체 1백50개인 수출품목 가운데 40개가 수입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고 1백29개는 전체시장점유율 5위 안에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2007년 이후 1위를 지키고 있다.

중소기업에게도 한·칠레 FTA는 성장의 계기가 됐다. FTA 발효 후 칠레에 신규 진출한 기업의 96퍼센트가 중소기업이었다. 수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83퍼센트가 중소기업 제품이었다.

2006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FTA 역시 우려 속에서 출발했다. 고도로 개방된 경제체제인 싱가포르는 준비돼 있어 우리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역시 결과는 걱정과 반대로 나타났다. 교역량도 늘고 무역수지도 개선됐다. 발효되기 전인 2005년 23억달러이던 무역흑자가 2010년엔 79억달러로 약 2백40퍼센트 불어났다.

선박과 경유, 금·은·백금 등 주요수출품의 약진이 돋보였다. 특히 선박해양 품목은 5년 동안 5백40퍼센트나 수출이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다. 서비스 부문의 투자가 증가한 것도 의미가 있다. 금융과 물류 등 싱가포르가 강점을 가진 서비스업 투자가 늘어나 국내 서비스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도 교역량이 크게 늘었다. 2006년 발효 4년 만에 약 1백15퍼센트 증가했다. EFTA는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되지 않은 영국, 덴마크, 포르투갈, 스웨덴,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총 7개국의 자유무역기구로, 한·EFTA FTA는 유럽 선진국과의 FTA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역량은 늘었지만 무역수지는 악화됐다. 수출보다 수입 증가량이 컸기 때문이다. 무역적자가 2005년 3억8천만달러에서 2010년 31억7천만달러로 7배 이상 확대됐다. 하지만 해운과 금융, 보험 등 EFTA의 경쟁력이 높은 산업에서 양측의 직접투자가 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인도 상용입국자 1년 만에 60퍼센트 늘어

2007년 발효된 아세안과의 FTA에서는 무역흑자가 갑절 이상 불어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수출이 73퍼센트 증가한 데 비해 수입 증가율은 54퍼센트에 머문 결과다. 교역량은 64퍼센트 불어났다. 주요 수출품인 석유와 선박제품은 1백퍼센트 이상 수출액이 늘어났다. 수입은 반도체, 원유, 천연가스 등의 비중이 높았다. 농림수산물의 수입은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1월 1일 발효된 인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교역 측면에서는 FTA와 거의 동일하지만 경제협력 등 FTA보다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의 효과도 나오고 있다. 불과 1년 만에 교역량이 40퍼센트나 늘어난 것이다. 수출 증가량이 수입보다 커 무역흑자 규모도 48퍼센트나 늘었다. 인적교류도 활발해졌다.

2010년 상용입국자(단기상용, 단기취업, 산업연수, 상사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목적 입국자)가 전년에 비해 60퍼센트나 많아졌다. 전문직 입국자도 18퍼센트 늘었다. G

글·변형주 기자

조선DB

한·미 새 이정표 열다

이명박 대통령, 美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4박6일의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방문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미국 역대 국빈 방문으로는 여섯번째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미(訪美)는 6·25전쟁의 뼈아픈 역사를 함께 극복한 한·미 양국이 군사·안보 공동체를 넘어, 경제·사회·문화 공동체로 동반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선DB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10월 13일(현지시각) 오전 백악관 집무실에서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11일 미국 방문을 위해 전용기 편으로 출국, 워싱턴 동포 4백여 명과의 만찬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내년 재외선거가 동포사회의 발전에 긍정적 요인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되면 한·미 경제·통상 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펜타곤 방문

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오전 수도 워싱턴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6·25전쟁 참전용사들과 대화하면서 뼈아픈 역사를 함께 극복한 한·미 간의 혈맹(血盟)을 과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위시한 미 행정부와 의회는 대한민국 국가원수로는 13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이 대통령에게 파격적인 예우를 갖췄다. 이 대통령은 12일 미 국방부(펜타곤)의 요청으로 워싱턴 외곽에 있는 펜타곤의 심장부인 '탱크룸'을 방문,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으로부터 안보 정세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 대통령을 펜타곤에 초청해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고 싶다고 요청해 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동맹인 한국 국가원수에 대한 각별한 예우이며 동시에 공고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와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안보공약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워싱턴 윌러드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미 상공회의소 주최 한·미 경제인 오찬에서 도나휴 미 상의회장 등 미국 기업인들을 만나 "한·미 FTA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미국 기업은 물론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미 FTA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한·미 FTA의 성공은 양국 기업인들의 손에 달렸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 리더십 빛났다" FTA 비준 화답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0월 12일 워싱턴 D.C. 버지니아 타이슨즈 코너에 있는 한식당 '우래옥'으로 이 대통령을 초청해 비공식 만찬을

조선DB

이 대통령이 지난 10월 12일 워싱턴 윌라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미경제인 오찬에서 토마스 도너휴 미 상공회의소 회장(왼쪽), 윌리암 로즈(오른쪽) 씨티그룹 상임고문과 건배하고 있다.

함께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의 비공식 만찬을 백악관이 아닌 외부에서 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미국 음식이 아닌 상대국의 전통음식을 메뉴로 선택한 것도 보기 드문 사례다.

당초 양국 실무진은 경호 문제 등으로 백악관에서 만찬을 준비하려고 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격의없이 얘기하기 위해 외부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며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한 식당을 선택하라고 특별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만찬에는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대니얼 러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톰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 우리 측에서는 김성환 외교장관,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이 배석했다.

이에 앞서 미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에 부응해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에 맞춰 한·미 FTA 이행법안을 비준했다. 이례적으로 하원의 심의 기한을 앞당겼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에는 관례를 깨고 상·하원이 동시에 토론을 진행하면서까지 FTA 이행법안을 처리했던 것이다. 미 의회에서 FTA 체결 이행법안에 대해 이처럼 초고속 심의를 한 사례는 지난 2004년 7월 모로코와의 FTA가 유일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식당 우래옥에서 식사 도중 미 의회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을 자신의 휴대전화인 '블랙베리'를 통해 접하고 "압도적으로 통과돼 축하한다"고 소개, 모두 박수를 쳤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이 빛났고, 잘된 일"이라고 화답했다.

김연아, LA에서 날아와 오찬에 참석

이 대통령은 1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을 비롯한 동북아 정세와 한·미 FTA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양국 정상은 이번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동안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포함해 대화 시간만 무려 13시간을 넘게 할애했다.

특히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국 하원과 상원 본회의를 차례로

조선DB

이 대통령이 지난 10월 12일 오후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미 국방부를 방문,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 등 미군 수뇌부로부터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있다.

통과함에 따라, 한·미 FTA는 이번 방미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는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으로 가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상회담 직후 이 대통령은 조셉 바이든 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미국 국무성 벤자민 프랭클린 룸에서 공동주최하는 오찬 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이 오찬에는 미 국무성이 LA에서 훈련 중인 '피겨 퀸' 김연아와 미국의 '피겨 전설' 미셸 콴을 공식 초청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연아는 "지난 2010년 밴쿠버올림픽 이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편지를 받았다"면서 "힐러리 국무장관을 만나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고 했다.

오바마와 디트로이트 동행… 시카고도 방문

이명박 대통령은 또 13일 한국 국가원수로는 다섯번째이자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13년 만에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한·미 FTA 체결의 의미와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합동연설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한·미 FTA가 양국 간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 '원칙 있는 대화'의 큰 틀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저녁에는 미국의 유력 정·재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안내해 디트로이트 자동차산업단지를 둘러봤다. 두 정상은 14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한 자동차공장을 방문해 FTA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연설을 하기도 했다. 미 자동차산업의 본고장인 디트로이트에서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를 대내외에 알리는 '퍼포먼스'를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후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로 이동,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이 주최하는 경제인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15일 동포간담회에 각각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올랐다. G

글·오동룡 기자

미 의회·펜타곤에서

조선DB

1

연합

2

3

연합

미국민·참전용사와 함께

4

조선DB

5

AP연합

6

연합

1 워싱턴 하원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끝마친 이 대통령이 의원들과 방청객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2 지난 10월 12일 한국 대통령 최초로 펜타곤을 방문한 이 대통령이 워싱턴 외곽에 있는 펜타곤의 심장부인 '탱크룸'을 방문,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으로부터 안보 정세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있다.

3 이 대통령이 파네타 미 국방장관(오른쪽)과 펜타곤 회의실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4 지난 10월 12일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마이클 리닝턴 워싱턴 관구 사령관(육군소장)과 패트릭 핼리넌 소장의 안내로 무명용사탑에 헌화하고 전시실을 관람했다.

5 백악관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양국 국기를 들고 나온 현지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는 이 대통령.

6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지난 10월 13일 버지니아 애난데일 고등학교에서 미셸 오바마 여사와 함께 학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투표참여 경품이벤트

7대 자연경관에 투표하면 엑센트, 모닝, 태블릿 PC 등 경품이 와르르~

① 현대차 HYUNDAI

엑센트 2대, 아이패드 등

http://www.hyundai.com

현대차 이벤트 게시판 참고

② 기아차 KIA

모닝 1대, 갤럭시 탭 등

http://www.kia.co.kr

기아차 이벤트 게시판 참고

③ KT kt

태블릿 PC 7명 등

http://jeju.olleh.com

이벤트 사이트에서 투표하면 응모완료

④ 패밀리마트 Family Mart

모바일 상품권(1,000원) 5천명

http://www.familymart.co.kr

패밀리마트 이벤트 게시판 참고

⑤ 스포츠토토 toto

제주왕복항공권 5명 등

http://www.sportstoto.co.kr

스포츠토토 이벤트 게시판 참고

⑥ 제주관광공사

제주왕복항공권 10명 등

http://www.ijto.or.kr

제주관광공사 이벤트 게시판 참고

UNESCO 자연과학 분야 3관왕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도전!

- 문자 투표 : ☎ 001-1588-7715로 제주 전송 (150원)
- 전화 투표 : ☎ 001-1588-7715 → 1번 → 7715 (180원)
- 인터넷 투표 : www.n7w.com (투표방법 : 제주도청 홈페이지 참조)

※ 문자 전화 투표는 횟수에 관계없이 가능, 인터넷 투표는 이메일 계정수 만큼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범도민추진위원회

기 획 특 집

자전거로, 트레킹으로 찾아가자! 16개 보, 36경

문화가 흐르는 소통의 4대강이 다가옵니다.
사통팔달의 4대강 종주 자전거길, 아름다운 산책로와 수변생태공원,
여가생활을 위한 오토캠핑장과 체육시설이 4대강에 만들어져
새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줍니다.
16개 보는 커다란 물그릇이자 친환경에너지 생산의 보고이며
지역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 4대강 새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 박상훈

4대강 16개보 가운데 가장 먼저 개방행사를 가진 금강 세종보. 지난 9월 24일 열린 개방행사 모습이다.

지역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지역의 강'

아름다운 수변공간 · 전국 종주 자전거길 · 오토캠핑장도 관광거점

금강 세종보 개방행사를 시작으로 4대강 16개 보가 순차적으로 완공돼 11월 말이면 모두 개방된다. 가뭄에 대비한 '커다란 물그릇' 역할을 하는 16개 보는 소수력발전을 통한 청정에너지 생산현장이자 수려한 수변정경을 바탕으로 관광거점으로도 활용되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도약대가 될 전망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을 기념하는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가 오는 10월 22일 각 수계를 대표하는 보(洑)에서 동시에 열린다.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가 열리는 보는 ▲한강 이포보(경기 여주군) ▲금강 공주보(충남 공주시) ▲영산강 승촌보(광주광역시 남구) ▲낙동강 강정고령보(대구시 달성군, 경북 고령군) 등 4개 보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지난 9월 24일 금강 세종보(충남 연기군) 개방행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4대강 16개 보를 개방해 왔다. 세종보 다음으로 ▲10월 6일 금강 백제보(충남 부여군), ▲10월 8일 영산강 죽산보(전남 나주시) ▲10월 15일 한강 여주보, 강천보(경기 여주군), 낙동강 구미보(경북 구미시) 순으로 진행되어 왔다.

보 주변에 어도 · 하중도 만들어 생태계 단절 해소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 이후에는 낙동강 보들의 개방행사가 이어진다. 11월 5일에는 함안창녕보(경남 함안군, 창녕군), 상주보(경북

조선DB

영산강 승촌보 위 공도교 위로 자전거 행렬이 지나고 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오는 11월 5일 개방행사를 갖는 낙동강 상주보.

상주시), 11월 12일은 창녕합천보(경남 창녕군, 합천군), 11월 15일은 낙단보(경북 의성군), 11월 19일은 칠곡보(경남 칠곡군), 11월 26일은 달성보(대구 달성군)에서 개방행사가 열린다.

또한 9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방되어 온 4대강의 경관 명소인 36경(景)도 11월까지 공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방될 계획이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개방행사지원단의 박재순 부단장은 "각각의 개방행사들은 단순히 와서 관람하는 행사가 아닌 국민들이 4대강의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행사"라며 "4대강살리기 사업의 본 모습과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행사, 화려한 행사보다는 간소하고 소박한 행사로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4대강 개방행사는 사업구간 개방이라는 의미를 넘어 '지역의 강이 새롭게 태어나 지역민들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게 되는 것을 기리는 자리'이므로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지역축제 등과 연계해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

10월 6일 개최된 백제보 개방행사의 경우 인근 부여 구드레나루터에서 열리는 백제문화제와 연계해 개최됐다. 또 10월 15일 열린 여주보와 강천보 개방행사는 여주 도자기축제와 연계해 지역축제의 일환으로 치러졌다.

'4대강 새물결'이란 주제로 16개 보 개방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 4대강살리기 사업은 홍수예방, 가뭄해소, 수질개선, 수변 생태복원, 지역발전 및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한 기후변화 대비 녹색성장사업으로, 2009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올 연말 본류 구간의 준공을 앞두고 있다.

4대강 본류 구간 준공에 앞서 이루어진 16개 보 개방을 통해 그간 공사로 인해 접근이 제한됐던 수변공간도 속속 개방되고 있다. 자전거길, 산책로, 체육시설 등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설치된 시설과 수변공간은 이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더욱 안전하고 수량이 풍부해진 강에서는 카누, 카약, 조정 및 요트 등 수상레포츠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6개 보 주변에는 물고기가 오르내릴 수 있는 어도(魚道)와 하중도(하천 가운데 만든 섬)를 만들어 생태계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이들 보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디자인을 바탕으로 건설됐다.

영산강 죽산보의 아름다운 야경.

금강 백제보의 소수력발전소 지붕 위. 낙차를 이용한 회전력

한강 이포보는 여주의 상징인 백로의 알을 형상화한 조형물과 수중 원형정원으로 16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보로 선정됐다. 영산강 승촌보는 인근 호남평야를 상징하는 쌀을 디자인해 교각을 세웠다. 또 금강 백제보는 백마강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계백장군이 말을 탄 모습을, 낙동강 강정고령보는 후기 가야시대의 중심이란 역사를 반영해 가야금과 수레바퀴토기를 형상화했다.

각각의 조형미를 자랑하는 16개 보 가운데 14개 보가 36경의 일부로 선정된 점은 보를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당초 계획에 충실하게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보 위를 지나는 공도교와 전망대들도 벌써 지역의 명물이 되고 있다.

8억톤 용수 확보… 연 2억7천만킬로와트 전력 생산

물을 가두긴 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수위에 도달하면 물을 방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보의 기능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 발표(2009년 6월) 이후 같은 해 10월 발표된 16개 보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4대강 중 강바닥의 가장 낮은 곳에 설치되는 16개 보의 주요 기능은 상류의 수위를 유지하여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16개 보가 완성되면 모두 8억톤의 용수가 확보된다.

이들 16개 보는 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통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한강 여주보(전체가 가동보)를 제외한 15개 보가 수문이 없는 '고정보' 부위와 수문이 있는 '가동보' 부위로 구성되어 있다. 가동보를 도입한 것은 수량에 따라 적절하게 수문을 가동함으로써 강바닥에 쌓이는 퇴적물 배출이 가능하고 홍수와 가뭄에 기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가동보 수문은 크게 3가지 형식으로 나뉜다. 문의 작동방식에 따라 ▲앞으로 기울었다 섰다 하는 전도식 수문 ▲둥글게 돌아가는 회전형 수문 ▲오르내리는 승강식 수문으로 구분된다.

전도식 수문의 예로 16개 보 중 가장 먼저 개방한 금강 세종보를 들 수 있다. 세종보는 전도식 가동보를 설치하여 자유로운 수위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회전형 수문을 가진 보로는 황포돛배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디자인한 한강 강천보를 들 수 있다. 또 승강식 수문의 예로는 호남평야의 쌀을 상징하는 교각을 가진 영산강 승촌보가 있다.

박경아 기자

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발전기 일부가 보인다.

보는 친환경에너지 생산의 보고이기도 하다. 16개 보는 저수로 양끝 혹은 한쪽 끝에 모두 5만7백56킬로와트아워 용량으로 소수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연간 약 2억7천만킬로와트아워의 전력이 생산된다. 이는 약 25만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16개 보 중 두번째로 개방행사를 가진 백제보의 경우 약 5만킬로와트아워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백제보 건설을 담당한 금강 살리기 6공구 GS건설 조병훈 현장소장은 "백제보는 인근 농가 기준으로 약 4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는 하루 5백만원 정도의 규모이며, 백제보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매일 한국전력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금강 세종보를 시작으로 16개 보가 우리 곁으로 오고 있다. 16개 보와 더불어 보를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수변공간, 전국을 종주하는 4대강 종주 자전거도로, 오토캠핑장 등이 함께 우리 곁에 옴으로써 새로운 강변 여가문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문의 4대강 콜센터 ☎1577-4359 (10월 말까지) ☎1877-4000 (10월 말부터)
4대강 이용 도우미 포털 www.riverguide.go.kr

4대강 개방행사 일정

개방행사 완료	4대강 새물결맞이 (10월 22일)	개방행사 예정
·**금강** 세종보 (9월 24일) 백제보 (10월 6일) ·**영산강** 죽산보 (10월 8일) ·**한강** 여주보·강천보 (10월 15일) ·**낙동강** 구미보 (10월 15일)	·**한강** 이포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승촌보 ·**낙동강** 강정고령보	·**낙동강** 함안창녕보, 상주보(11월 5일), 창녕합천보(11월 12일), 낙단보(11월 15일), 칠곡보(11월 19일), 달성보(11월 26일)

연합

조선DB

10월 10일 경주현대호텔에서 개막한 제19차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 최광식 문화체육부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위 사진). 각국 대표와 언론인들이 10월 13일 낙동강 상주보 관람을 하고 있다.

유엔세계관광기구 총회 참석 각국 대표 등

안동 하회마을·낙동강 상주보 현장 돌아봐

10월 8~14일 경북 상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제19차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 참석차 우리나라에 온 각국 대표와 언론인 등 40여 명이 한국 전통마을과 4대강살리기 사업현장을 돌아보았다.

뉴욕타임스의 새너 버틀러, BBC의 존 벨 등 외신기자단을 포함한 일행은 10월 13일 경북 안동 하회마을과 낙동강 상주보 현장을 직접 돌아보았다. 이번 UNWTO 총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2개국 장관, 16개국 차관 및 대사 포함, 1백여 개국 8백여 명이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회의를 한국의 문화예술과 관광 자원을 알리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한국 전통을 그대로 간직한 안동 하회마을과 녹색성장의 일면을 보여주는 낙동강 상주보 현장을 돌아보는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꿈의 라이딩’ 전국 종주 첫 매듭 엮었다

남양주~양평 27킬로미터… 행주대교~충주 구간 중단 없이 이어져

폐철로와 폐철교를 활용한 남한강자전거길 남양주~양평 26.8킬로미터 구간이 지난 10월 8일 공식 개통했다. 남양주 구리한강공원에서 끊겼던 강변 자전거도로가 양평 양근대교까지 이어지면서 한강에서 낙동강까지 ‘4대강 따라 자전거 종주 여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남한강자전거길 개통은 국토종주 4대강 녹색 자전거길 개방을 알리는 시작이다.

“처음에는 저도 4대강 사업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흉물스럽던 폐철도와 폐터널이 자전거길로 다시 태어나고 자전거길을 따라 달리며 새로 단장한 강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니 4대강 사업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월 8일 남한강자전거길 개통식에 참여한 ‘양평 MTB’ 동호인 권오윤(45)씨의 말이다. “양평에 살면서도 그동안 남한강과 이렇게 가까이 자전거를 타고 달려본 적은 없었다”는 그는 이날 개통식 후 양수역에서부터 팔당역, 팔당역에서 양평역에 이르는 총 40킬로미터 구간을 자전거로 왕복했다.

직접 구간을 달려본 그는 “경치가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개통식 전 이미 “여주 강천보까지 달려봤다”는 그는 “조만간 충주댐까지 왕복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전거 동호인 김수미(68·주부)씨 역시 “많은 구간을 라이딩해 봤지만 남한강과 맞닿을 듯 라이딩하는 기분은 단연 최고인 것 같다”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4대강 자전거길이 모두 완공되면 전국을 종주하는 ‘꿈의 라이딩’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중앙선 폐철도 공사 7개월 만에 새 단장

10월 8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문화체육공원에서 열린 남한강자전거길 개통식은 소통(길 트임+만남, 화합+도약)을 주제로 자전거 묘

이명박 대통령과 자전거 동호인들이 지난 10월 8일 새로 개통된 남한강자전거길을 달리고 있다. 사진은 북한강철교 코스.

기, 자전거 라이딩, 동호인 퍼레이드, 남한강변 사진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개통식에는 이명박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지역인사, 시민, 자전거 동호인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남한강 자전거길 개통을 함께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앞으로 국토의 전 강변에 자전거도로가 생긴다"면서 "4대강 사업은 주민들에게 강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공사를 시작해 7개월 만에 개통한 남한강자전거길 26.8킬로미터 구간은 남한강변에 있던 옛 중앙선 폐철도와 폐철교를 활용한 것으로 남양주 팔당역에서부터 양평 양근대교까지 이어지는 코스다.

조선DB

자전거동호인들이 팔당댐을 지나 남한강자전거길을 따라 달리고 있다. 이 길은 서울의 한강자전거길과 이어진다.

행주대교부터 팔당대교에 이르는 한강자전거길 63킬로미터까지 합하면 총 90킬로미터, 여주의 세 개 보를 거쳐 남한강 상류 충주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백35킬로미터에 달한다. 여기에 오는 11월 개통 예정인 경인 아라뱃길 자전거도로와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1백 킬로미터 새재자전거길(충주 탄금대~상주 세풍교)까지 개통되면 인천에서 부산까지 국토를 종단하는 자전거길이 생긴다.

4대강 자전거길 중 가장 빼어난 풍광 자랑

남한강, 금강, 영산강 자전거길 종주노선은 각각 1백35킬로미터(팔당대교~충주댐), 1백10킬로미터(세종시~금강하굿둑), 1백31킬로미터(영산강하굿둑~담양댐)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걸쳐 완공됐고, 낙동강(낙동강하굿둑~안동댐 3백78킬로미터)은 11월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낙동강 자전거길이 완공되면 총연장 1천5백92킬로미터(새재길 100킬로미터 별도)에 이르는 4대강 자전거길이 완성된다. 이 중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자전거길은 1천1백87킬로미터다.

이번에 개통한 남양주~양평 구간은 국토 종주 자전거길 중 26.8킬로미터에 불과한 짧은 구간이지만 4대강 자전거길 중 가장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코스로 손꼽힌다.

팔당대교를 시작으로 팔당호를 끼고 달리기도 하고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공원을 지나기도 한다.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천연 목재로 바닥을 깔아 자연미를 살린 북한강철교도 지난다. 특히 4개의 지점엔 투명강화유리가 설치돼 있어 철교 아래로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보며 달릴 수 있다.

"일부 구간 진입로 정비나 편의시설 부족 등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적지않지만 각 구간 안전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동호인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이연주(37·주부)씨는 "특히 터널에 소화기와 TV를 설치해 라이더들이 더욱 안심하고 라이딩할 수 있게 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남한강자전거길은 부분 개통과 함께 서울 및 수도권 자전거 동호인들이 찾아오면서 굵직한 자전거 관련 행사도 진행된다. 오는 10월 22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유치기념 강변자전거대행진'을 개최한다.

평창올림픽 기념 2018명 22일 '강변자전거대행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념과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한편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다. 사전 접수한 2천18명이 참가해 하남시 미사리에서 출발, 팔당역, 북한강철교, 양근대교를 거쳐 여주 이포보까지 남한강자전거길을 달린다.

'강변자전거대행진'에 참가하는 행복나눔자전거연합 박상돈(51·개인사업) 대표는 "그동안 4대강 자전거길뿐만 아니라 명품보도 궁금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여주 여행까지 하고 올 계획"이라고 전했다. G

글·박근희 기자

‘사진찍기 좋은 곳 베스트 10’ 중 하나인 충남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갈대밭.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이곳은 한국 4대 갈대밭 중 하나로 꼽힌다.

물 맑고 경치 좋고… “추억을 담아가세요”

아름다운 보와 함께 주변의 너른 갈대밭 등 4대강 36景 자랑

4대강살리기 사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변 볼거리가 늘어나고 있다.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강가 풍경은 가을하늘의 아름다움과 어우러져 여행객의 발길을 붙잡는다. 여행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4대강변 사진찍기 좋은 곳 베스트 10’을 선정했다.

한강 이포보 좌안 상류
16개 보 중 가장 아름다워… 파사산성도 지척

이포보 좌안 상류 소수력발전소 근처가 사진찍기 좋은 곳 베스트 10 중 하나로 꼽힌 것은 전적으로 이포보 때문이다. 이곳에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보(洑)’인 이포보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경기 여주군에 위치한 이포보는 ‘보는 직선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달리 매끈한 곡선형을 자랑한다.

조선DB

소수력발전소 근처에 서면 삼국시대 때 축성된 것으로 전해지는 파사산성(사적 251호)도 한눈에 들어온다. 파사산성은 ‘여주에서 가장 경치 좋은 곳’으로 꼽힌다. 이포대교에서 경기도 양평 방향으로 2백미터가량 떨어져 있으며, 정상이 해발 2백50미터로 낮은 편이어서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성벽 역시 예전 형태를 간직하고

있어 가을철 가볍게 산책을 즐기기에 적당하다.

금강

신성리 갈대밭

영화 촬영지로 유명… 계절마다 색다른 운치

금강변에서는 충남 서천군 한산면의 신성리 갈대밭이 베스트 10 중 한 곳으로 뽑혔다. 신성리 갈대밭은 너비 2백미터, 길이 1천5백미터, 면적 33만제곱미터에 달하는 너른 갈대밭이다. 신성리 갈대밭은 전남 순천시의 순천만, 해남군의 고천암호, 경기도 안산의 시화호와 함께 한국 4대 갈대밭으로 꼽히며,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갈대 7선에 속한다. 또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배경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이곳 갈대꽃은 매년 10월 10일 전후로 절정을 이루며, 눈이 오는 겨울에 방문하면 가을과는 또 다른 운치를 느낄 수 있다. 눈이 사뿐히 내려앉은 갈대의 모습은 하얀 소금꽃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충남 서천군은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 산책로를 만들고 물레방아 조형물을 조성해 놓았다. 갈대밭 전 구간을 둘러보는 데는 총 1~2시간가량 소요되며, 12~1월에는 청둥오리와 고니, 괭이갈매기 등 10만여 마리의 희귀 철새를 만나볼 수 있다.

영산강

석관정

나주제일루 명성… 강물 위 황포돛배도 한눈에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영산강 석관정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장소 중 하나다. 석관정에 올라서면 유유히 굽이쳐 흘러가는 영산강의 절경을 한눈에 만끽할 수 있다. 석관정은 전남 나주시 다시면 동당리 동백마을에 있는 정자로, 최초 건립연대는 1480년이라고 전해진다. 정유재란으로 폐허가 됐다가 1998년 중건해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됐다.

석관정에선 영산강을 횡단하는 황포돛배를 볼 수 있다. 황포돛배는 황토로 물들인 돛단배로, 조선 후기의 어업 수단이자 운송 수단이었다. 황포돛배는 목포 옥암동 영산호 계류장에서부터 무영대교 아래까지 20킬로미터를 왕복 운송하며, 영산강의 대표적 관광 상품이다.

낙동강

을숙도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로 야생동물들의 터전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위치한 낙동강 을숙도에는 해마다 수많은 철새가 찾아온다. 을숙도는 낙동강 하구에 토사가 퇴적돼 형성된 하중도(河中島)로, 동양 최대 철새도래지 중 한 곳이다. 1966년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됐다. 낙동강하구는 사계절 내내 먹이가 풍부해 고니, 재두루미, 쇠제비갈매기 등 다양한 철새가 찾아오며, 그 수는 총 1백38종 10만여 마리에 이른다. 넓은 갯벌과 갈대밭이 우거져 있어 고라니나 삵(멸종위기야생동물 2급) 등 야생동물들의 터전이 되기도 한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철새 관망대에 올라서면 다양한 철새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 주변 경관도 수려하다. 특히 지난 2007년 개관한 을숙도 철새공원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생태계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전시·교육공간으로, 초·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와 함께 방문하기 좋다. G

글·박소영 기자

사진찍기 좋은 곳 베스트 10

	장소	주소	특징
한강	이포보 좌안 상류 소수력발전소 근처	경기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이포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인근에 파사산성이 있음
	탄금대와 용섬	충북 충주시 칠금동	충주를 지나는 남한강 한가운데 자리잡은 용섬의 모습과 그곳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탄금대의 비경
	가평지구 자라섬과 수변생태공원	강원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방하리 46번 국도에서 내려다보는 자라섬의 모습이 아름답고 자라섬 내에 조성된 생태공원의 전경을 담아 낼 수 있음
금강	합강정	충남 연기군 동면 합강리	금강과 미호천 합류지점의 전경과 동산의 모습이 잘 어우러짐
	신성리 갈대밭	충남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강가에 비친 주변 갈대밭 풍경이 아름다움
영산강	하구 갈대습지와 석양	전남 목포시 옥암동	영산호 강물가의 갈대와 어우러진 석양 풍경이 볼거리
	석관정과 황토돛배	전남 나주시 다시면 동당리	영산강 3경 석관정에서 바라보는 전망과 황토돛배가 인상적
낙동강	비봉산 전망대	경북 상주시 도남동 삼덕리 비봉산	낙동강 10경 경천숲(오리섬) 및 도남서원 자전거도로가 아름다움
	다람재	대구 달성군 현풍면 자모리	도동서원과 강 건너 잠산 샛강 수변공원 조성지가 한눈에 들어오며 낙동강의 경관을 관망할 수 있음
	을숙도 철새도래지	부산 사하구 하단동	관망대에서 철새들의 군무를 볼 수 있음

자료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한강

줄기마다 우리네 역사와 문화가 함께 흐르는 한강.
풍부한 문화유산과 레저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남한강) 홍보팀 ☎ 02-2125-2762
원주지방국토관리청(북한강) 홍보팀 ☎ 033-749-8292

1경 | 두물경

4백년 수령의 '도당할매' 느티나무가 유명해 '두물머리 춤굿' 행사가 열리기도 하는데 느티나무, 느릅나무 등이 있는 숲을 조성, 숨 쉬기 좋은 녹지공간이 연출된다.

두물머리, 세미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두물경

2경 | 억새경

기존의 강상체육공원 인근에 다목적 광장, 잔디마당을 조성하고 운치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억새림을 더욱 확대해 강변의 멋스러움을 더할 공간으로 거듭난다.

억새림, 강상체육공원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억새림

3경 | 이포보와 파사경(婆娑景)

이포보, 여주 저류지를 연계해 지구별 다른 숲을 조성, 4계절 색다른 하천탐방로가 펼쳐진다. (봄–왕벚나무, 여름–이팝나무, 메타세쿼이아, 가을–은행나무 등)

이포보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이포보

4경 | 여주보와 이능경(二陵景)

쌀로 유명한 여주는 '이팝나무'를 주 수종으로 정하고 대규모 물억새 군락지를 조성, 가을의 향을 머금은 둔치를 만날 수 있다.

여주보, 자연형 어도, 물억새 군락지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백석리

여주보

6경 | 바위늪경

단양쑥부쟁이 군락지를 대체할 서식처를 조성, '자연관찰과 생태복원'이라는 테마를 담은 다양하고 안정적인 하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강천섬 단양쑥부쟁이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

5경 | 강천보와 신륵경(神勒景)

황포돛배 나루터 등 기존 문화경관과 연계하여 '금모래은모래터'를 정비, 강변유원지와 더불어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한다.

강천보, 황포돛배, 신륵사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신륵경

단양쑥부쟁이

7경 | 봉황경

기존의 식생현황과 유사한 수종인 능수버들을 심어 주변의 산지와 수변환경을 조화롭게 연계했다.

능암리섬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능암리섬

8경 | 탄금경

기존 식수인 버드나무를 심어 주변 수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탄금대 하중도에 설치되는 접안데크에 그늘목을 만들어 '쉼' 공간을 연출한다.

탄금대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탄금대

천리물길 풀어내는 '비단강' 백제 문화의 중심지로 일본에 백제 문화를 전파한
'컬처로드' 금강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홍보팀 ☎ 042-670-3328

8경 | 합강공원

합강정을 배경으로 기존 수림대와 함께 소나무숲을 만들고, 단풍과 은행나무를 식재해 금강 합류부를 시원한 정자에서 바라보는 풍류를 즐길 수 있다.

합강정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합강리

합강정

6경 | 공주보와 고마나루솔밭

웅진사, 공산성, 곰나루 국민관광단지 등 문화역사자원과 기존의 송림군락을 연계해 넓은 면적의 소나무숲을 만들고 역사적 의미를 담아낸다.

공주보, 고마나루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고마나루정자와 솔밭

7경 | 세종보와 세종공원

세종시와 연계된 도심형 수변공간으로 목백합, 은행나무의 조성으로 일상에 지친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세종보, 생태습지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나성리

세종시

5경 | 백제보와 왕진나루

계곡이나 수변가에 자생하던 느릅나무를 숲으로 조성, 청양 칠갑산자락에서부터 뻗어 나오는 자연 하천생태환경을 보존하는 구간이 마련된다.

백제보, 황포돛배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왕진나루지구

3경 | 강경포구

'선녀가 내려와 춤춘다'는 옥녀봉 맞은편에 식재한 배롱나무의 붉은 꽃잎에 해질녘 노을이 닿으면 청초하고 아름다운 빛의 향연이 시작된다.

옥녀봉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옥녀봉에서 바라본 세도지구

4경 | 구드레지구

대규모 잔디광장과 잔디광장 주변의 느티나무숲 조성으로 문화적 혜택과 삼림욕을 한꺼번에 만끽할 수 있다.

낙화암, 궁남지, 백제문화 재현단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구드레지구

2경 | 신성리 갈대밭

세계적 관광지로 33만제곱미터(10만평) 규모를 갖춘 '신성리 갈대밭'에 양버들과 갯버들을 균등하게 식재해 갈대밭과 조화를 이룬 최고의 경관지로 조성한다.

신성리 갈대밭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신성리 갈대밭

1경 | 금강하구 철새도래지

금강 하류부 대규모 철새도래지에 곰솔을 식재해 서식환경을 제공하고 철새들의 먹이 '이팝나무'를 심어 생태계를 살리는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금강하굿둑 철새도래지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금강하구 철새도래지

굽이굽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삶, 문화, 역사의 공간으로 가장 남도다운 남도의 젖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강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홍보팀 ☎ 063-850-9344

8경 | 담양 대나무숲

담양습지가 시작되는 지역으로 기존의 대나무 수림대와 어우러진 고수부지 숲을 조성해 자연의 향과 생태체험의 최적지로 활용한다.

담양습지, 대나무군락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담양 대나무숲

7경 | 광주 풍영정

풍영정에서 바라보는 대안 경관을 조성하고 광주시민들을 위한 왕벚나무 숲길을 만들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한다.

풍영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광주 풍영정

6경 | 승촌보

생태계 보전지역인 용두 합류부 인근에 철새 서식 환경에 이로운 갈참나무를 식재해 천변낙안(川邊落雁 : 영산강변 철새들의 날갯짓)의 풍류를 느낄 수 있다.

승촌보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승촌보

5경 | 나주평야

나주평야에 지역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돕는 친수문화공간을 조성해 활용도를 높인다.

나주평야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동

나주평야

3경 | 나주 황포돛배

석관정에 대형 팽나무와 좀작살나무를 식재해 휴식과 산책을 즐기며 석관황포(石串黃布 : 황포돛배를 타고 하천습지와 경치 관람)를 체험할 수 있다.

석관정, 황포돛배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나주 황포돛배

4경 | 죽산보

죽산보에는 왕벚나무 꽃길과 은행 · 층층나무를 식재, 갈대, 창포 등과 야생화, 인공습지를 다야들에 조성해 잠자리, 반딧불이를 관찰하는 공간을 마련한다.

죽산보, 다야들, 대지예술공원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대지예술공원

2경 | 무안 느러지

영산강에 대규모 갈대숲을 조성해 장관을 이뤄 몽탄노적(夢灘蘆笛 : 꿈 여울에 들리는 갈대 피리소리) 낭만을 느낄 수 있다.

늘어지들, 식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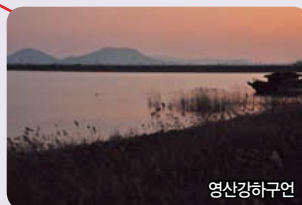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이산리

식영정

1경 | 목포 영산호

영산강에서 낙조 조망이 가능한 휴게데크를 조성하고 지하수위가 높아도 잘 생육하는 버드나무, 물푸레나무를 심어 생태계와 경관을 되살리는 곳으로 거듭난다.

영산강 하구언, 영산호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영산강하구언

낙동강

장장 1천3백리에 이르도록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우리 삶을 품어준 고마운 강.
물굽이마다 꽃피운 비경이 가슴속에 스며듭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홍보팀 ☎ 051-660-1268

11경 | 삼강절경

삼강 주변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쉼터와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삼강주막을 재현해 예스러움과 넉넉한 여유로움을 만나볼 수 있다.

- 삼강 자연경관(삼강주막)
-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삼강주막

12경 | 부용경

낙동강의 절경과 함께 어우러진 천혜의 역사문화 자원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을 훼손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해 전통의 멋스러움과 선조들의 삶을 느낄 수 있다.

- 부용대, 하회마을, 병산서원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병산리

하회마을 전경

10경 | 상주보와 경천경

자전거 테마공원과 자전거길의 그늘목 그리고 자연 생물관과 제방 숲길을 조성해 한적한 시골길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 상주보, 상주자전거축제, 경천대, 억새숲
- 경상북도 상주시 남장동

경천경

8경 | 구미보와 선학경

흑두루미 서식지 제공을 위한 낙우송 및 느티나무를 식재해 해평 철새도래지의 생태 경관을 돋보이게 함으로써 대자연의 향을 만끽할 수 있다.

- 구미보, 해평들 철새도래지(흑두루미)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해평들

9경 | 낙단보와 낙강경

정자목인 느티나무와 매화나무, 산벚나무 등을 식재, 옛 낙동 나루터의 경관을 복원해 전통의 멋과 향을 느낄 수 있다.

- 낙단보, 낙동 나루터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낙강경

7경 | 칠곡보와 호국경

호국공원 등 역사 문화공간과 칠곡보를 배경으로 칠곡군 군목인 매화나무와 고수부지 숲, 갈대와 물억새 군락지가 조성된다.

- 칠곡보, 호국공원, 모래수주와 갈대숲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칠곡보

4경 | 산과 들의 갈대 향연

화왕산 정상 억새밭에선 10월초 갈대축제가 열린다. 억새를 갈대라 부른 지역전통을 따라 이름지었다.

- 화왕산 축제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화왕산 갈대축제

6경 | 강정고령보와 달성습지사문진

가야금을 모티브로 한 강정고령보, 옛 나루터가 있는 물억새 및 꽃창포 군락지가 특색 있는 수변테마 공간으로 거듭난다. 버드나무 수림대와 나루터 경관에도 자연의 향이 입혀진다.

- 강정고령보, 달성습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달성습지

3경 | 낙동강 딴섬 생태누리

딴섬의 생태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다목적 초지와 '물억새 군락지' 조성으로 은빛물결이 넘실대는 아름다움을 만나는 곳이 연출된다.

- 삼랑진 하중도(딴섬)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밀양강 합류부

삼랑진

5경 | 창녕합천보와 그린생태공원

낙동강과 황강 합류부의 사주와 창녕합천보를 배경으로 야생화 군락지를 조성해 자연경관의 멋스러움과 들꽃의 향기가 조화를 이룬다.

- 창녕합천보, 들꽃향연
-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창녕합천보

1경 | 을숙도 생태공원

을숙도의 철새도래지 생태관광지 제공과 철새들의 서식처 및 먹이 제공을 위한 식이식물 위주의 숲을 조성해 생태학습의 장을 마련한다.

- 을숙도 철새도래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2경 | 황산경

오봉산 임경대 전망을 위한 갈대 군락, 그리고 '양산문화축제'와 연계한 '숲속건강원'이 만들어진다. 또 버드나무가 있는 대규모 연꽃원도 조성된다.

- 오봉산 임경대에서 낙동강 조망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오봉산 임경대

을숙도 철새도래지

“이자르강에도 보 있고 추가 설치 논의 중”

4대강 비판교재로 꼽는 ‘독일 이자르강 복원사업’ 책임자 아르젯 박사 방한

혹자는 4대강살리기 사업이 오히려 ‘강을 죽이는 사업’이라고 말한다. 강을 자연 상태로 되돌리려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고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찾은 ‘이자르강 복원 사업 책임자’ 클라우스 아르젯 박사는 4대강 사업 또한 하천을 다시 살리는 사업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장정필

독일 뮌헨시 이자르강 복원 사업의 총책임자인 아르젯 박사(오른쪽)가 우효섭 수자원학회장과 영산강 승촌보 주변을 둘러보며 4대강살리기 사업의 치수 효과와 환경 개선 효과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이자르 플랜’과 닮았다 홍수 예방 등 ‘하천 살리기’ 사업 공감”

독일 뮌헨시를 흐르는 ‘이자르강’은 4대강살리기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겐 익숙한 이름이다. 뮌헨시는 2000년부터 이자르강을 덮고 있던 콘크리트 제방을 걷어내고 구불구불한 자연 하천의 모습을 살려냈다.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은 “독일은 하천을 생태적으로 돌리는데, 한국은 반대로 인공적으로 강을 파헤치고 있다”며 이자르강을 4대강살리기 사업을 비판할 때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자르강은 ‘생태하천 복원의 모범’, ‘진정한 강 살리기의 표상’처럼 여겨졌다. 클라우스 아르젯 박사는 바로 이자르강 복원 사업(이자르 플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다. 2003년부터 최근까지 뮌헨시 수자원국장을 맡아 이자르 플랜을 진두지휘했다. 최근 ‘4대강살리기사업 국제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방한한 그는 “이자르 플랜과 4대강 사업은 하천을 다시 살린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아르젯 박사는 지난 10월 8일 방한해 우효섭 한국수자원학회장과 함께 4대강 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그는 “4대강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사업 이후 하천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아르젯 박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이자르 플랜에 대해 말해 달라.

“19세기 말 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자르강을 직선화했다. 인공 구조물에 의해 강폭이 좁아졌는데 그러다보니 홍수 위험

이 커졌다. 그래서 콘크리트 벽을 걷어내고 준설을 통해 강폭을 넓혀 유속을 늦추고 수위를 낮췄다. 또 직선이던 강을 최대한 자연스런 모습으로 변화시켰다."

한국에서 이자르강은 자연 복원의 모범 사례로 여겨지는데.

"엄밀히 말하면 무조건적인 자연 복원이 아니라 자연에 가깝게 만든다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자르 플랜의 주목적은 홍수 방지다. 그다음으로 고려한 것이 자연 복원과 시민을 위한 여가공간의 확보다."

공사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

"한국에서처럼 환경단체와 일부 시민의 반대가 있었다. 어떤 식으로 복원할 것이냐를 두고 의견 대립이 오랫동안 계속됐다. 하지만 이젠 시민이 쉬고 즐길 수 있는 친근한 강으로 환영을 받고 있다."

4대강 사업과 이자르 플랜을 비교하자면.

"이자르 플랜은 8킬로미터의 구간을 복원하는 지역적인 사업이다.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4대강 사업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다. 강폭도 이자르강은 수십 미터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강들은 1킬로미터를 넘기도 한다. 또 이자르강은 강수량이 1년 내내 일정한 반면, 한국은 여름에 집중호우가 쏟아진다. 지형·기후·수량 등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사업을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다."

4대강 사업 현장에 직접 와본 느낌을 말해 달라.

"직접 보니 독일에서 간접적으로 접한 것과는 느낌이 다르다. 물고기를 위한 어로를 만든 것이 인상적이다. 홍수조절뿐 아니라 친환경적인 생태복원에도 신경 쓴 것 같다. 자전거도로 같은 시민 편의 시설도 잘 갖춰졌다. 이런 점에선 4대강 사업과 이자르 플랜 사이에 유사점이 많다. 하천을 다시 살린다는 점은 일맥상통한다."

4대강 사업을 평가한다면.

"홍수 예방과 수자원 관리, 여가공간 확보,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앞으로 나타날 효과 등에 대해 좀 더 연구해 보고 싶다."

한국에서 독일인의 4대강 비판 사례가 자주 소개됐다.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는 "자연에 대한 강간"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독일에 거주하는 한 한국인 박사는 이자르 플랜에 관여했던 슈테판 키르너의 발언을 인용해 "이자르강에는 4대강과 같은 인공 보(洑)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분들의 발언을) 평가하는 게 적절치 않다. 다만 슈테판 키르너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한 분이라 잘 안다. 그런데 이자르강에는 한국의 4대강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보(wier)가 존재한다. 뭔가 착각을 했거나 두 분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독일 이자르강에 설치된 보. 다리 위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현재 이자르강에 보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환경단체와 조율 중이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오랜 기간 하천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분이다."

앞으로 4대강 사업에서 신경써야 할 점이 있다면.

"사업 성과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 이후 하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하천이 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인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역행침식' 현상은 일정시점 지나면 안정화"

한편 아르젯 박사와 4대강 사업 현장을 함께 둘러본 우효섭 한국수자원학회장은 일부 환경단체에서 '역행침식' 등을 거론하며 여전히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해 "역행침식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며 만들어낸 말이다. 지리학이나 하천공학에서는 '두부침식(headcut)'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하천 바닥이 낮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일정시점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안정된다"고 말했다.

우 회장은 이어 "4대강 사업에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편"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 "무엇보다 강 준설과 강폭 넓히기로 홍수를 예방하고 일정 수준의 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특히 지금 방문한 전남 영산강 지역은 이번 사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낸 곳이다. 사실 영산강은 과거 4개 농업용 댐을 축조한 이후 건천화 및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일정 수준의 수량을 확보,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가뭄 및 갈수기 때 하천 유지수량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하천의 기능을 복원함은 물론 수질 개선 효과도 봤다"고 설명했다. G

글·손해용 (중앙일보 경제부 기자)

지난 10월 8일 한국산악회 주최로 경기도 여주군내 남한강에서 이틀간 열린 카누와 캠핑 체험행사에 참여한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고등학교 학생들.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강바닥을 준설한 덕분에 남한강 카누탐사가 가능해졌다.

"노 젓다 보니 시험 스트레스 확 풀렸어요"

안양 인덕원고 32명 강천보~여주보~이포교 28킬로미터 구간서 '1박2일'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가 들어선 한강과 금강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카누와 캠핑 행사가 열리고 있다. 카누 탐사를 통해 강변 풍경과 보의 정경도 감상한 이번 행사는 남북 청소년이 함께 어울린 교감의 장이 되기도 했다.

"구명조끼는 패션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멋 부리지 말고 빠짐없이 단단히 매세요."

지난 10월 8일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의 남한강 강천보 인근 이호대교 아래 한강공원. 남녀 고등학생들이 카누 타기 전 사전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산악회 청소년등산아카데미에 참가한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고등학교 1학년생 32명(여자 14, 남자 18명)과 인솔교사, 한국산악회 회원들이었다.

몇몇 여학생들은 구명조끼의 앞판과 뒤판을 연결하는 벨트를 다리 사이에 매야 하는 것에 민망해했지만 이내 생명의 안전이 걸린 문제란 걸 인식하고 안전벨트를 단단히 맸다. 학생들에게 카누의 역사와 사용방법을 강의한 이는 산악인 허욱(58)씨. 그는 윤대표씨와 함께 1979년 한국인으로는 처음 알프스 아이거 북벽 등정에 성공한 전설적인 클라이머로, 1980년대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 등반가였다.

한국산악회 청소년등산아카데미에 참가

그동안 코오롱등산학교, 서울등산학교 등에서 후배 등산인을 길러낸 그는 학생들에게 "카누에서 생명은 노"라고 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을 최소한 적게 들여 노를 저어야 한다" "한 팀은 한마음이 되어야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등 노하우를 일러주었다.

강의가 끝나고 자신들의 키와 비례하는 길이의 노를 하나씩 든 학생들이 흥분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표정으로 12

1 출발을 앞두고 강변에 나란히 놓인 카누. 뒤로 강천보가 보인다. 2 어쭈! 해보자는 거지? 카누에 익숙해진 인덕원고 학생들의 장난스러운 모습. 3 카누도 타고, 강변 경치 감상도 하는 남한강 카누탐사.

척의 카누를 강으로 옮겼다.

카누탐사 일행은 여주보에서 물을 나와 카누를 들고 보를 통과한 뒤 카누탐사를 재개해 이날 늦은 오후 이포보 위쪽 당남지구에 도착했다. 이들의 카누여행 거리는 약 28킬로미터. 학생들은 이포보가 바라다 보이는 대신공원 오토캠핑장에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오전에는 이포보 안에서 카누타기를 즐겼다.

인덕원고 1학년 신예은양은 "노 젓는 것이 처음이라 힘들었고, 특히 카누를 들고 이동할 때 진짜 힘들었다"며 "친구들과 겪은 어려운 고비들이 모험처럼 스릴 있고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너무 좋은 체험이라 또 해보고 싶어요"

또 이지은양은 "이번 체험을 통해 협동심과 인내심을 기른 것 같다. 기회가 온다면 다시 한 번 해보고 싶을 만큼 좋은 경험이었다"고 했다. 오성근 체육교사는 "아이들 반응이 정말 좋았다"고 말했다. "처음 접해 호기심도 있었지만 힘들었을 겁니다. 아이들이 첫날은 겁도 좀 내고 그러더니 이틀째는 적응이 돼서 정말 신나게 즐기더군요."

한국산악회가 청소년을 위한 카누와 캠핑 체험행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두번째. 지난 5월 7,8일에도 탈북청소년 10명과 한양공고 산악부 학생 12명, 인솔교사와 한국산악회 지도자 등 모두 34명이 참가한 가운데 충북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조기암마을에서 여주군 여주읍 우만리 나루터까지 22킬로미터 구간에서 카누와 캠핑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산악회는 10월 15,16일에도 세종보~금강보~백제보 구간에서 열리는 카누와 캠핑 행사를 개최했다. 금강에서의 카누와 캠핑 행사에는 탈북청소년 21명(인솔교사 포함)과 남한 청소년 8명, 도우미 학부모 3명 등 총 41명이 참가했다.

한국산악회 기획이사로 이날 행사를 지휘한 강구영 한국외국어대 환경학과 교수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해주며 살아 있는 강문화를 맛보게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카누가 우리 강에서 할 수 있는 안전한 물놀이임을 확인한 것도 큰 소득"이라고 말했다.

산악인 허욱씨는 "4대강살리기 사업 이전부터 산에 올라가 우리 강을 바라보며 수상스포츠가 발달한 외국처럼 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카누여행을 했으면 했는데 그간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해 아쉬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한강에서 카누를 타보니 아직도 카누 바닥이 걸리는 곳이 있다. 얕은 물에서 즐길 수 있는 게 카누지만 강 수심이 30센티미터 정도면 바닥이 걸린다. 이왕이면 카누와 요트를 곳곳에 띄우고 수상스포츠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더욱 좋겠다"고 했다. G

글·박경아 기자

해가 지며 황금빛으로 물든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의 양촌지구 오토캠핑장. 4대강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만들어진 이곳은 10월 8일 시범개장했다.

아빠야 엄마야 강변으로 캠핑가자

이포보 주변 양촌지구 오토캠핑장 시범운영… '럭셔리 레저'서 대중화 첫발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한강에 만들어진 오토캠핑장이 10월 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양촌지구에 들어선 오토캠핑장에서 열린 첫 오토캠핑에 자동차 동호회원들과 함께 소외계층 가족과 청소년, 장애인 등이 참가하는 행사가 마련돼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신나게 자전거 타는 아이들, 아빠와 함께 배드민턴을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이 가을 강변을 배경으로 평화롭고 아늑하게 느껴진다. 해가 저물며 황금빛으로 변한 캠프장에 퍼지는 숯불의 향기, 고기 굽는 냄새… 이곳은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오토캠핑장이 만들어진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양촌지구이다.

시범개장을 한 10월 8일 오후 60여 동의 캠핑텐트가 자리잡은 양촌지구 오토캠핑장에서는 아이들의 까르르 웃음소리, 어른들의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여기저기 이어졌다. 강쪽을 바라보니 국내 네티즌들이 4대강 16개 보(洑)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보로 선정한 이포보가 하류쪽에 보였다.

오토캠핑장 안에는 자동차와 캠핑텐트를 나란히 세울 수 있도록 마련된 '오토면' 60면, 텐트만 칠 수 있는 '웰빙면' 65면이 조성돼 있다. 순간온수기가 설치된 샤워장과 에어컨이 설치된 화장실, 개수대 등 편의시설이 시범개장에 맞춰 갖춰졌다. 각 캠핑텐트에는 전기도 공급돼 한 캠퍼는 텐트 안에서 '노트북 삼매경' 중이었다.

순간온수기 설치된 샤워장, 화장실 갖춰

시범개장 첫날 이곳 오토캠핑장을 찾은 이들은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강뜰애(愛) 오토캠핑' 참가자들이었다. 1박2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자동차 동호회원 80여 명과 함께 소외계층 90여 명을 초청했다는 점에서 특별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온 장애인과 저소

득층 가족, 한부모가정 자녀 등이었다.

주최측은 참가자 모두에게 텐트에서부터 코펠과 버너, 야외테이블, 랜턴 등 캠핑용품을 모두 대여해 주었다. 또 가족퍼즐 맞추기, 도전 사커킹 등 각종 게임을 통해 포인트를 쌓은 참가자들에게는 바비큐 고기를 제공했다. 쌀쌀한 가을 날씨를 감안해 텐트 안에 전기장판도 깔아두었다. 주최측은 몸이 불편한 이들이 고기만 즉석에서 구워먹을 수 있도록 '밥차'도 준비했다.

초청된 동호인들 가운데에는 캠퍼들이 다수 있어서 주최측이 제공한 텐트 이외에도 대형 타프(그늘막)와 숯불 화로, 수북한 장작더미, 가스랜턴 등이 곳곳에서 캠핑장다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마트 · 장비대여점도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과 함께 숯불을 피우고 군고구마를 구워먹으며 강변 정취를 즐기던 유미라(37·경기도 평촌)씨는 동호회원인 남편, 초등학생 아이 둘, 그리고 이웃 가족과 함께 왔다고 했다.

그가 권하는 커피향이 구수했다. "텐트를 칠 수 있는 구역이 다른 곳보다 널찍해서 좋아요. 이용자들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마트가 시급히 필요한 것 같고요, 서울 난지공원처럼 장비대여까지 한다면 더욱 좋겠어요."

이날 누구보다 기쁜 캠핑의 밤을 보낸 이들은 '특별한 배려' 없이는 캠핑장을 찾을 수 없는 이들이었다.

교통사고를 당해 일을 하지 못하는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 그리고 3명의 어린 여동생들과 함께 캠핑장에 온 초등학생 조성호(11)군은 "예전에 아빠와 함께 캠핑을 간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다시 동생들과 올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말했다.

다리가 불편한 여성장애인 박승주(52)씨는 이날 저녁 장기자랑 무대에 올라 '남행열차'를 불러 3등상을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몸이 불편하고 사람 많은 곳이 부담스러워 안 오려고 했으나 이곳에 와보니 정말 오기를 잘한 것 같다"고 밝혔다.

동호회원,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참가자들은 함께 어울린 장기자랑 시간에 동호회원 아빠와 함께 온 최혜원(대전 서원초등학교 4학년)양의 영어노래 '레몬트리'에 박수로 박자를 맞췄고, 지적장애인 여홍철씨가 부른 '무조건'에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소외계층이 참여할 기회 많아졌으면…

장기자랑 시간에 이어 꽃미남 보컬그룹 스윗소로우의 유쾌하고 감미로운 공연을 보고 즐긴 캠핑참가자들은 각자의 텐트에서 강변의 밤을 맞이했다. 텐트 안에서 잠을 청하는 이들에게도, 화롯가에서

1 대신공원 오토캠핑장의 개수대. **2** 지글지글…숯불 위 바비큐. **3** 장애인 보호차량도 캠핑 중! **4** 아빠와 함께 배드민턴을. **5** 멀리 이포보를 배경으로 한 강변 만찬.

정담을 즐기는 이들에게도 가을 밤은 깊어갔고, 밤의 어둠은 모두를 하나로 감싸 안았다.

"처음에는 참가를 꺼린 이들도 있었어요. 부끄럽다고요. 막상 이곳에 와서는 캠핑장 나들이도 하고, 세상구경도 했다고 다들 너무 좋아해요. 오토캠핑이 아직 소수만이 즐길 수 있는 문화잖아요."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의 김춘희 복지과장은 "이러한 행사에 소외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대자동차 국내마케팅팀 조정신 차장은 "캠핑 참가자 대부분이 만족해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이 어울리는 오토캠핑 행사를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G

글과 사진·박경아 기자

오늘도 걷는다… 강따라, 길따라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에서 11월까지 행사 풍성… 즐거운 뒤풀이는 '덤'

11월까지 4대강의 보들이 순차적으로 개방행사를 갖는 가운데, 이를 기념하는 걷기 행사도 곳곳에서 열린다. 공주 금강변에서는 공주보를, 담양에서는 전국 최고의 산책길인 수목길을 걷는다. 낙동강이 흐르는 고령과 달성에서는 각각 강정고령보와 달성보를 걸으며 새로 꾸며진 보의 늠름한 자태를 둘러본다.

영산강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사색 유혹

영산강이 흐르는 담양에서도 걷기대회가 열린다. 오는 22일 담양 추성경기장에서 출발하는 걷기대회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 구간의 성공적인 완공을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담양오방길 중 수목길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로 지정된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추성경기장 야외무대에서 출발해 관방제림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지나는 코스는 전국에서도 내로라할 만큼 경치가 좋은 곳이어서 자꾸만 걸음을 멈추게 만든다. 천연기념물 제366호로 지정된 관방제림에는 푸조나무, 팽나무 등 수령 2백~3백년 된 고목들이 들어서 있어 가을의 향취를 물씬 느낄 수 있다.

2006년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가을철을 맞아 붉게 물들 준비를 하며 참가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특히 이번 걷기 행사에서는 코스 중간에 차, 비누, 한과, 엿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장을 열어 길을 걸으며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당일 현장 접수, 참가비 무료.

상세 코스 추성경기장 야외무대→관방제림→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금월교(약 5킬로미터, 2시간 정도 소요) **문의** 062-220-0541

조선DB

담양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걷는 여행객들. 가을을 맞아 불꽃처럼 타오른 가로수의 풍광이 장관을 이룬다.

금강

공주보

파워워킹 시범 등 바르게 걷기 교육

국토해양부

금강에서는 오는 10월 22일 개방하는 공주보를 중심으로 걷기 행사가 펼쳐진다. 풍물팀의 신명나는 식전행사가 펼쳐진 후 걷기대회가 시작되는데, 안전을 위해 참가자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몸 풀기 운동도 실시한다. 특히 파워워킹 시범 등 바르게 걷기요령을 교육해 효과적인 걷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마나루 수상공연장을 출발해 금강변 자전거길을 지나 공주보를 왕복하는 코스를 짠 덕분에 시민들은 여유롭게 걸으며 공주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걷는 도중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해 코스 곳곳에서 사물놀이패가 흥겨운 판을 벌이고 공주보 종점에서는 음악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식후행사도 다채롭게 준비했다. 코스를 완보한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한다. 추첨을 통해 공주의 농·특산물과 건강용품 등 경품도 나눠줄 예정이다. 당일 현장 접수, 참가비 무료.

상세 코스 고마나루 수상공연장→금강변 자전거길→공주보 왕복→백제큰길→고마나루 수상공연장(약 4킬로미터, 1시간 30분 정도 소요) **문의** 041-840-2557

낙동강

강정고령보

9백여미터 보 위를 걷는 재미 쏠쏠

국토해양부

오는 22일 강정고령보 개방과 함께 고령에서는 낙동강 물길 따라 걷기 행사가 펼쳐진다. 고령 친수문화광장 내의 우륵 문화마당에서 치러지는 이번 행사의 코스는 고령 친수문화광장에서 출발해 노곡생태탐방로를 지나 강정고령보를 둘러본 후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왕복 6킬로미터 거리다.

공주보 걷기 행사와 마찬가지로 노곡생태탐방로를 지난 후에는 강정고령보 위를 직접 걸을 수 있어 새로 개방한 보의 모습을 속속들이 살펴볼 수 있다. 강정고령보는 4대강 16개 보 중 가장 긴 953.5미터의 길이를 자랑해 보 위를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

걷기대회를 마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낙동강 새물결맞이 강정고령보 개방행사가 시작된다. 인기가수 축하 공연, 보 개방 퍼포먼스,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걸으면서 함께 해봐요

- 가족, 친구와 함께 참가해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우며 걸어보자.
- 길을 걸으며 만나는 유적지나 여행지에 관해 미리 공부해 본다.
- 식물도감을 들고 가 길에서 보는 나무나 꽃의 이름을 맞춰본다.
-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보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보자.
- 대회가 끝난 후 식후행사를 꼭 즐기자. 경품 당첨의 행운도 빌어보자.

곽용환 고령군수는 "낙동강을 희망의 강으로 조성해 문화의 강, 관광의 강, 경제의 강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고령의 상징인 대가야와 관련한 다양한 문화관광시설과 각종 유적을 낙동강과 연계해 전통과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일 현장 접수, 참가비 무료.

상세 코스 고령 친수문화광장→노곡생태탐방로→강정고령보→고령 친수문화광장(약 6킬로미터, 2시간 정도 소요) **문의** 054-950-6032~4

낙동강

달성보

아이들과 산책하면서 가을도 만끽

국토해양부

달성군은 10월 22일 고령군과 공동으로 강정고령보 개방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어, 11월 26일에는 달성보 개방 행사와 함께 낙동강 생태길 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가수와 국악인들의 공연에 이어 치러지는 걷기대회에서는 달성보~고령교까지의 5킬로미터 구간과, 달성보~금포천까지 10킬로미터의 총 2가지 코스를 골라 걸을 수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자전거를 타고 달성보에서 강정고령보까지 달리는 42킬로미터 코스도 준비했다.

달성보에서 고령교까지 걷는 5킬로미터 코스는 거리가 짧아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듯 걷기에 좋다. 달성보에서 금포천까지 가는 10킬로미터 코스는 조금은 힘들지만 강변의 가을을 만끽하며 유유자적 걷기에 좋다. 특히 금포천은 올해 4대강살리기 사업과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와 연계해 제방변에 나무와 꽃을 보기 좋게 심어 놓아 볼 만하다. 당일 현장 접수, 참가비 무료.

상세 코스 1코스 달성보→고령교(5킬로미터), **2코스** 달성보→금포천(10킬로미터), **자전거 코스** 달성보→강정고령보(42킬로미터) **문의** 053-668-2583 G

글·손수원 기자

한식당 첫 '미슐랭 별' 받은 뉴욕 '단지'의 셰프 겸 오너 김훈씨

"우리 식당서 제일 비싼 건 18달러짜리 보쌈"

세계적 권위의 레스토랑 평가지인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 등급을 받은 한식당이 처음으로 탄생했다. 미슐랭 가이드는 지난 10월 5일(현지시각) 발매된 '미슐랭 가이드 뉴욕'을 통해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한식당 '단지'에 별 1개를 부여했다. 그 한식당에는 어떤 노하우가 숨어 있을까?

권위 있는 레스토랑 평가서 '미슐랭 가이드'에서 한식당 최초로 별 1개 등급을 받은 '단지'의 셰프 겸 오너 김훈씨. 그는 "한식 세계화는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한식당 '단지'는 개업한 지 1년도 안 됐지만 이미 뉴욕타임스는 물론 월스트리트 저널·뉴욕 포스트·데일리 뉴스 등에 잇따라 소개되는 등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곳이다. 그 중심에는 '단지'의 셰프 겸 오너인 김훈(38·후니킴)씨의 한식 세계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었다.

김훈씨는 "한식 세계화는 가능성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필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 6일 "음식이 맛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게 한식이면 당연히 팬이 생기게 마련"이라며 "언젠가는 한식이 글로벌 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벤트성으로는 한계가 있다. 선전이나 광고는 호기심을 줄 수 있겠지만 결코 팬은 생기지 않는다"며 "음식이 유명해지려면 조그만 식당 한두 곳에서 시작해 서서히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는 것이지 선전으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이벤트 위주의 한식 세계화 사업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 차원에서 음식을 잘하는 셰프를 해외에 많이 내보내거나 한식을 요리하는 외국인 셰프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맛있는 식당이 생기고 유명세를 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인내해야 한다"며 저변을 두루 다져가는 방식의 접근법을 거듭 주문했다.

한식당으로는 처음으로 미슐랭의 별 등급을 받았는데.

"이틀 전 전화를 받았다. 미슐랭의 편집국장인데 우리에게 별 등급을 주게 돼서 영광이라고 하더라. 이름을 물으니 정책상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진짜 미슐랭이구나 생각했다."

'단지'의 전문 음식은.

"어디선가 퓨전 한식당이라고 썼던데 사실은 전통 한국음식을 판다. 골뱅이 무침과 육회, 보쌈, 고추파전, 잡채, 안창살 구이, 파무침, 갈비찜, 부대찌개, 은대구 조림 등이다. 가격대는 보통 10~16달러 정도이고 제일 비싼 보쌈이 18달러다. 양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뉴요커들은 푸짐한 것보다는 한두 명이 와서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맛보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매출은 어느 정도 되나.

“일주일에 3만달러(3천6백만원) 정도다.”

서양인이 좋아하는 한식은.

“음식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맛있게 잘 만들면 된다. 고기와 야채를 좋아하는 것은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다르지 않다. 다만 좋은 재료를 쓰면 손님들의 신뢰가 커진다. 우리 집에서는 골뱅이 무침과 보쌈, 불고기 샌드위치 등이 비교적 잘 나가는 편이다.”

한식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잘 모르겠다. 등급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선전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다. 사실 셰프 친구들이 많은데 그들이 한식 먹고 싶어할 때 마땅히 데려갈 만한 곳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미식가들을 위해 자긍심 차원에서 이 식당을 하게 됐다.”

한식의 세계화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가능성이 있느냐보다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 뉴욕에 한국인 셰프가 많은데 이들이 모두 외국 요리를 한다. 유명식당에 가면 보통 두세 명이 있는데 이들이 식당을 나와서는 한국요리를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요리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식당이 있고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데 그게 한식이면 세계화가 된다.”

정부 차원에서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행사를 도우려 한다. 하지만 우리가 가보면 이곳에서 A급인 음식이 그곳에서는 C급이 되고 만다. 음식 맛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행사는 호기심은 주지만 ‘맛’에 대한 팬을 만들지는 못한다.

그것은 식당만 할 수 있는 영역이다. 10년 전 세계 최고였던 프랑스 요리가 지금은 스페인에 자리를 내줬다. 스페인 정부가 주방장을 해외에 많이 내보내고 외국인 주방장들을 도와준 게 비결이었다.”

포부가 있다면.

“글쎄. 사실 4월까지는 지금 이 상태가 포부였다(김씨는 지난해 12월 오픈해 처음 넉달간은 돈을 벌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은 사람들이 집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맛있다고 얘기한다.

또 다른 꿈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음 꿈을 정한다면, 한국음식이 이렇게 맛있다는 기대가 있으니까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겠다. 그 이후는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 G

글 · 정규득 (연합뉴스 특파원)

조선DB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한식당 ‘단지’. 36석의 아담한 식당이 한식으로 뉴요커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김훈씨는

의대 다니다 요리사로 진로 바꿔

한식 요리사 김훈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10세 때부터 미국에서 살았다. 의대에 다니던 중 마지막 학기에 요리사로 진로를 바꿨다. 미슐랭 가이드 별 세 개를 받은 유명 프랑스 레스토랑 ‘대니얼(Daniel)’과 맨해튼의 고급 일식당 ‘마사’를 두루 거친 뒤 지난해 12월 뉴욕 맨해튼 유명 식당가인 헬스키친 내에 한식당 ‘단지’를 개업했다. 이후 뉴욕타임스, ABC 방송 등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두 번에 걸쳐 소개한 바 있다. 2011년 ‘뜨는 스타 요리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지난 달 UN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머무는 동안 한식세계화를 위해 노력 중인 현지 동포들과 그가 운영하는 한식당 ‘단지’에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미슐랭 가이드는

최고의 레스토랑 평가서… 최고 등급 별 셋

프랑스 타이어 제조업체 미슐랭(Michelin)이 매년 발간하는 레스토랑 평가서이자 가이드북이다. 1900년 타이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배포하는 자동차여행 안내책자로 출발해 ‘미식가들의 성서’로 불리고 있을만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별 개수로 레스토랑 등급을 표시하며 최고 등급은 별 3개다. 그동안 홍콩의 한식당 ‘서라벌’ 등이 별 아래 등급인 ‘포크 앤드 스푼’ 등급을 받은 적이 있지만 한식당이 별 등급을 받은 것은 ‘단지’가 처음이다. 별점은 맛, 분위기,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님을 가장한 전담요원이 전 세계 10여개 주요 도시의 식당을 수차례 방문해 등급을 매긴다.

'드림 캠페인' 세번째 주인공 '꿍따리 유랑단' 강원래 단장

"장애인 편견을 깨고 브로드웨이 꼭 간다"

'꿈은 이루어진다.' 공감코리아-싸이월드 공동기획 '드림 캠페인'은 청년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프로젝트다. 저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진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말하고, 이 가운데 '일촌' 2천5백명의 공감을 받으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물론 홀로는 이룰 수 없는 꿈도 서로 도우면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이 바탕에 깔려 있다.

'드림 캠페인'을 통해 단원들과 함께 전국 순회공연에 도전하는 강원래 단장.

지난 10월 6일, 광주광역시 오룡동에 위치한 디자인센터. 사회적기업 '꿍따리 유랑단' 뮤지컬 공연 무대의 막이 올랐다. 강원래(姜元來·42) 단장은 갑작스런 교통사고 경험담을 무대 위에서 담담히 털어놓으며 관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클론' 멤버로 활동하며 '꿍따리 샤바라' '도시탈출' '돌아와' '초련' 등을 잇달아 히트시킨 그는 KBS 올해의 가수상, 제14회 골든디스크 본상 등을 거머쥔 정상급 가수다.

"제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한 지도 벌써 1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처음 생활을 시작하던 때를 돌이켜보면 꿈과 희망은커녕 짜증만 더 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희망의 공연'

'드림 캠페인'의 세번째 주인공으로 나선 강원래 단장은 "그때 제게 희망을 준 친구들이 지금 무대 뒤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몸은 비록 불편하지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해준 장애인 친구들과의 무대, 여러분도 함께 도와주실 거죠?"라고 외치자 관객은 일제히 "예"라고 화답했다.

강원래 단장이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꿍따리 유랑단'을 만든 것도 이런 연유 때문이었다. 그는 "2004년 보호관찰소에서 첫 강연을 한 후 말로만 하는 강연보다 저처럼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모아 공연을 하며 소외된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했다.

지난 2000년, 갑작스러운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진 그가 다시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장애인 친구들 덕분이었다고 한다. 절망 끝에서 자신에게 힘을 준 '끼' 많은 장애인 친구들에게 "함께 공연을 해보자"고 설득해 '꿍따리 유랑단'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꿍따리 유랑단'이 성공을 거두기까지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 정부 지원금이 갑자기 끊기면서 2008년부

'꿍따리 유랑단'의 뮤지컬 공연모습. 강원래 단장은 "공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일"이라고 했다.

터 이어오던 공연이 중단됐던 것이다. 이 때문에 강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감코리아와 싸이월드가 함께 추진 중인 '드림 캠페인' 문을 두드리게 됐다.

그는 "장애인 친구들이 공연할 수 있는 후원금이나 공연장 대여, 공연 자원봉사, 공연 홍보 등이 필요하다"며 "드림 캠페인을 통해 도움을 받고 싶다"고 했다. 한 법무부 직원은 강원래 단장에게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을 해달라"고 했지만, 그는 말썽꾸러기 청소년들에게 강한 거부감을 가졌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꿈이 없고 말썽만 피우던 내게 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고민하기 시작했다.

꿈을 향해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무대

결국 한손으로 무에타이(타이식 복싱) 챔피언이 된 후배를 보며 자신감을 얻은 강 단장은 끼 있는 장애인 친구들을 뽑는 오디션을 개최했다. 강 단장은 오디션을 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공연으로 만들어 무대에 올렸다. 그는 이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걸까.

강 단장은 "꿍따리 유랑단 공연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하루아침에 변할 거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면서 "장애인들이 만들어가는 무대가 아닌, 꿈을 향해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무대라고 생각해 달라"며 이렇게 말한다.

"무대가 끝날 때쯤 관객들 중 한 분이라도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저렇게 노력하고 도전하는데, 건강한 나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저들처럼 열심히 꿈에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꿍따리 유랑단과 함께 뮤지컬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강원래 단장. 그의 바람은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자신의 장점을 살려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를 지켜보는 비장애인들에게는 희망을 선물하고 싶다는 것이다.

"대학로 관객에게 인정받는 게 올해 목표"

강원래 단장은 "꿍따리 유랑단의 최종 목표는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해 공연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선 올해 목표는 대학로 소극장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꿍따리 유랑단을 만든 계기가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라면서 "꿍따리 유랑단 장애인 단원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다. 공감코리아와 싸이월드가 공동 기획한 '드림 캠페인'을 통해 우리가 작은 관심과 사랑을 보탠다면 이들이 꿈을 이루는 데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강원래 단장은 "꿈을 이뤄가는 과정도 꿈 못지않게 소중하다"면서 '파이팅!'을 크게 외쳤다. 그의 천장을 뚫을 듯한 힘찬 파이팅 소리가 내 가슴에 와닿아 박혔다.

'꿍따리 유랑단'이 전국순회공연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작은 관심과 사랑을 보탠다면, 우리는 함께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공연단 '꿍따리 유랑단'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G

글과 사진·박하나 (공감코리아 정책기자)

문의 클론엔터테인먼트 ☎02-593-9005

삼성미술관 리움

1

간송미술관

2

국립중앙박물관 · 리움 · 간송미술관

‘조선의 미술’ 시간여행

고대 미술 애호가라면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왔다. 국내 고미술 명가(名家) 세 곳이 나란히 고대 미술 컬렉션을 내놓은 것. 역사를 거슬러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은 11월 6일까지 조선시대 초상화를 망라한 〈초상화의 비밀〉전을 열고 있다. 한 · 중 · 일의 초상화를 한자리에 모은 이번 전시에서는 윤두서의 ‘자화상’을 비롯한 초상화 2백 점을 감상할 수 있다.

서울 한남동 삼성미술관 리움은 내년 1월 29일까지 〈조선화원대전〉을 연다. 단원 김홍도의 ‘군선도(君仙圖)’부터 보물 932호인 영조의 어진(御眞)까지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김홍도가 그렸다고 전해지는 춘화(春畵) 8점과 왕의 궁궐 밖 행차를 그린 ‘동가반차도(動駕班次圖)’도 최초로 공개했다.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은 〈풍속인물화대전〉을 열었다. ‘미인도(美人圖)’를 비롯한 혜원 신윤복의 대표작 15점,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의 대가 겸재 정선과 풍속화의 시조 조영석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딱 2주간만 진행된다. G

글 · 박소영 기자

초상화의 비밀 성인 5천원 ☎(02)2077-9000, www.museum.go.kr / **조선화원대전** 성인 7천원 ☎(02)2014-6900, www.leeum.org / **풍속인물화대전** 입장료 없음 ☎(02)762-0442

삼성미술관 리움

1 단원 김홍도가 1776년에 그린 '군선도'. 군선도란 신선 여럿이 모여있는 것을 그린 그림이다. 신선 19명이 등장하며, 가로 길이만 5백75.8센티미터에 달한다.

2 혜원 신윤복의 대표작 '미인도'. 조선 후기 여인의 전형성을 나타낸다.

3 보물 931호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 1872년 화가 조중묵이 낡은 원본을 새로 옮겨 그린 그림이다. 가로 1백50센티미터, 세로 2백18센티미터.

4 김득신 등 화원들이 1795년경 그린 '환어행렬도'. 정조가 사도세자의 묘소에 성묘한 뒤 한양으로 돌아오는 의장행렬을 담은 작품이다.

국립중앙박물관

헌책방거리에는 아련한 추억과 가을의 낭만이 가득하다. 인천 배다리 헌책방거리의 어느 서점 입구에선 구수한 책냄새가 날 것만 같다.

헌책방 그 거리, 가을 한 페이지를 읽고…

부산, 대구, 인천 등 헌책방거리 인기… 문화축제도 함께 즐길 수 있어

책 읽기 좋은 계절이다. 헌책방을 돌아다니며 시간의 냄새를 품은 책에 코를 박고 있다 보면, 어느새 가을이 지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전국 곳곳에 오래된 헌책방과 헌책방거리들이 있다. 이 중 여행 겸 다녀오기 좋은 곳들을 소개한다.

영국의 헌책마을 '헤이온와이(hay-on-wye)'를 만든 리처드 부스는 말한다. "새 책은 저자의 국가나 지역경제를 발전시키지만, 헌책은 세계를 오가며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그는 폐광촌이었던 헤이온와이의 소방서 건물을 사들여 1960년대 초 헌책방을 열었다. 이후 40여 곳의 헌책방이 들어서 지금까지 연간 50만명의 관광객을 모으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헌책방거리가 남아 있다.

부산 보수동 헌책방거리
전국 최대규모… 책박물관·북카페 눈길

한국전쟁 당시 부산국제시장 인근엔 사과 궤짝에 헌책을 놓고 파는 피란민들이 많았다. 북녘에서 피란 온 송정린씨 부부가 보수동 사거리 입구에 박스를 깔고 미군 부대에서 나온 헌 잡지나 고물상에게서 수집한 헌책 등을 팔면서부터 헌책방거리가 시작됐다.

보수동은 전국의 헌책방거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유명하다. 50여 곳의 헌책방이 모여 있다. 헌책방 중흥기였던 1980년대에는 헌책방이 70여 곳에 이르렀다고 한다. 만화책부터 참고서와 실용도서, 소설과 교양도서·잡지·고서·외국도서·LP음반 등까지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다.

거리는 이미 문화관광지로 거듭났다. 책방 골목 주변 계단, 가게 문을 닫은 셔터 등에는 벽화가 그려졌고, 주말마다 사진 찍으러 오는 관광객들이 꽤 많다. 골목길 끝에는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관'이라는 문화공간이 위치하고 있다. 책박물관, 북카페, 옥상정원 등이 있어 쉬어가기 좋다. 7년째 매년 9월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축제'

조선DB

가 열린다. 지하철 자갈치역에서 내려 3번 출구로 나와 극장가 쪽으로 올라온 뒤 국제시장을 지나 대청로 네거리에서 보수동 가로에 이르기까지 동서로 길게 이어진 골목길이다. 남포역에서 내려 슬슬 걸어 남포동 상가, 국제시장까지 함께 돌아보면 좋다.

인천

배다리 헌책방거리
일제 강점기 건축물 남아… 매년 축전도

인천의 송림동과 금천동 일대 '배다리'라 부르는 지역에 30여 년 된 헌책방 6곳이 모여 있다. '배다리'는 바닷물이 들면 배들이 다리 아래까지 드나들었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 역시 한국전쟁 이후 리어카 책방이 모이면서 형성됐다. 한창때는 50여 곳에 달했지만, 부침을 거듭하다 현재 6곳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와 1970~1980년대 건축물이 남아 있어 오래된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옛 여인숙들이 모여 있는 여인숙골목, 옛 성냥공장 건물, 옛 인천양조주식회사 건물을 개조해 만든 전시공간 스페이스 빔, 배다리 전통공예상가, 사진책도서관 '함께 살기' 등이 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벽화를 발견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매년 5월에는 '배다리를 가꾸는 인천 시민모임'에서 주최하는 '배다리 문화축전'이 열린다. 헌책 벼룩시장, 시 낭송회, 인문학 강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동인천역에서 도원역, 배다리 삼거리 방향으로 10분 정도 걷다 보면 나온다. 중앙시장 건너편 국제서림부터 책방거리가 시작된다.

대구

남문시장 헌책방거리
한때 1백50곳 성업… 야경투어 볼 만

보통 이야기하는 '대구의 헌책방거리'는 세 군데 정도로 흩어져 있다. 남문시장 근처, 시청 근처, 대구역 굴다리 부근 등이다. 대구의 헌책방들도 한국전쟁 직후 좌판에서 헌책을 팔기 시작한 것이 시초다. 1970~1980년대 전성기를 지나 대형 서점, 온라인 서점 등의 등장으로 서서히 사라져갔다. 당시 대구에만 헌책방 1백50여 곳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10곳 정도가 남아 있다. 그중 초창기부터 헌책방거리와 역사를 함께한 대륙서점, 대규모 보유서적을 자랑하는 코스모스서점 등이 대표적이다.

3년 전 시작돼 인기를 끌고 있는 '대구 중구 근대 골목길 투어'를 함께하면 어울릴 법하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건 경상감영공원~향촌동~대구역~종로초등학교~달서문~(구)조선식산은행~섬유회관~오토바이 골목~삼성상회 옛터~달성공원의 코스다. 3시간 정도 걸린다. 개화기의 고풍스러운 근대 문화유산과 풍경,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마다 진행하는 야경 투어도 참가해 볼 만하다.

단양

숲속 헌책방, 새한서점
보유서적 12만권… 단양팔경 이웃에

충북 단양의 숲속 외진 곳에 자리잡은 헌책방이다. 1979년 문을 연 오래된 서점이지만 처음부터 이곳에서 장사를 한 것은 아니다. 2002년 이곳으로 이사오기 전까지 서울 안암동 고려대 앞의 명물 서점이었다.

규모는 꽤 크다. 보유서적이 두 동짜리 가건물에 12만권에 이른다. 주로 대학교재·전문서적·원서·논문자료 등을 취급한다. 산골짜기로 서점을 옮겨올 수 있었던 까닭은 2001년부터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 가끔은 고려대 앞 서점을 드나들던 이들이 차를 몰고 이 깊은 곳까지 찾아오기도 한다.

주변으로 남한강과 충주호를 끼고 도는 금수산과 말목산 등 아름다운 산들이 있다. 인근 저수지와 남한강에서는 낚시를 즐길 수 있다. 조금만 나가면 도담삼봉·구담봉·옥순봉 등 단양팔경을 볼 수 있다.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나무판자에 손글씨로 쓴 표지판들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주소는 충북 단양군 적성면 현곡리 56번지. G

글 · 이로사 (경향신문 엔터테인먼트부 기자)

김주성·오세근 '토종 농구지존' 맞대결

남자 프로농구 개막… 지난해 챔프 KCC와 KT·동부·KGC인삼공사 우승 후보

2011~2012 남자 프로농구가 지난 13일 개막했다. 올 시즌 농구 판도는 한마디로 춘추전국시대라 부를 만하다. 지난 시즌 챔피언 KCC를 비롯해 KT·동부·KGC인삼공사 등이 우승 후보로 꼽힌다. 올 시즌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연봉킹' 김주성(32·동부)과 '특급루키' 오세근(24·KGC인삼공사). 이들의 활약에 따라 팀의 운명도 바뀐다.

'연봉킹' 김주성은 지난달 아시아선수권대회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농구대표팀 은퇴 얘기를 꺼냈다. "내가 없어도 능력 있는 후배들이 많다"고 했다. 10년 넘게 태극마크를 달았던 꾸준함과 노련함의 대명사인 김주성을 대신할 수야 없겠지만 그가 꼽은 후배는 '차세대 김주성'으로 손색없다. 중앙대를 졸업하고 올 시즌 프로에 입단한 오세근이다. 김주성이 '완성형'이라면 오세근은 '진행형'이다.

올 시즌부터 외국인 선수가 한 명밖에 뛸 수 없어 국내 빅맨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번 시즌 화두는 단연 KGC인삼공사다. 지난 10월 10일 열린 프로농구 미디어데이에서 10개 구단 중 절반이 넘는 감독들이 인삼공사를 우승후보로 지목했다.

인삼공사 2년반 리빌딩 오세근으로 화룡점정

KT 전창진 감독은 한술 더 떠 "인삼공사가 KCC나 동부를 이기고 꼭 우승했으면 좋겠다. 신선한 팀이 돌풍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듬뿍 응원을 보냈다.

인삼공사는 혹독한 두 시즌을 보냈다. 눈앞의 성적은 포기하다

조선DB

KGC인삼공사 오세근

연합

동부 김주성

시피 한 채 '미래'를 겨냥했다. 간판 포인트가드 주희정을 SK로 보내고 SK의 루키 김태술을 데려온 게 신호탄이었다. 김태술은 인삼공사로 온 뒤 곧 공익근무를 시작했다.

인삼공사는 2009~2010시즌엔 외국인 선수 나이젤 딕슨을 내주고 KT에서 신인드래프트 지명권을 받아왔다. 행운이 겹쳐 그해 드래프트 1·2순위로 박찬희와 이정현을 동시에 품었다. 그리고 '오세근 드래프트'로 불린 2011 KBL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오세근을 거머쥐었다. 인삼공사 이상범 감독은 "2년 반을 기다린 한을 풀었다. 리빌딩(재건)이 끝났다"고 소리쳤다.

리빌딩의 마지막 퍼즐이 된 '특급루키' 오세근은 중앙대 1학년부터 '괴물센터'라는 수식어를 달았다.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대회에서 든든히 한국 골밑을 지켰다. 중앙대 52연승의 신화를 이끌었고 한국농구 사상 최초인 쿼드러플 더블(4개 부문에서 두 자릿수 기록을 올리는 것)을 기록하기도 했다. 2미터·105킬로그램의 당당한 체구에도 스피드 농구를 할 수 있는 게 강점이다.

2011~2012년 프로농구 한눈에 보기 (지난 시즌 정규리그 성적 순) *표시는 신임 감독.

	감독 (나이)	핵심 선수
① 부산 KT (4강 PO)	전창진 (48)	'진화하는 슈터' 조성민
② 인천 전자랜드 (4강 PO)	유도훈 (44)	'4쿼터의 사나이' 문태종
③ 전주 KCC (챔피언전 우승)	허 재 (46)	'공포의 거탑' 하승진
④ 원주 동부 (챔피언전 준우승)	강동희 (45)	'질식수비의 핵' 김주성
⑤ 창원 LG (6강 PO)	김 진 (50)*	'우승 청부사' 서장훈
⑥ 서울 삼성 (6강 PO)	김상준 (43)*	'잡으면 한 골' 라모스
⑦ 서울 SK	문경은 (40)*	'쇼 타임' 김효범
⑧ 울산 모비스	유재학 (48)	'만들어진 천재' 양동근
⑨ 안양 KGC	이상범 (42)	'괴물 루키' 오세근
⑩ 고양 오리온스	추일승 (48)*	'트리플더블러' 윌리엄스

오세근 외에 만능포워드 양희종과 터프한 수비력의 김일두, 차세대가드 김태술까지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무모할 정도로 끈질긴 리빌딩 작업에 행운이 더해진 결과다.

이번 시즌 그 뚜껑이 열린다. 멤버로는 빈틈없다. NBA(미 프로농구) 출신 로드니 화이트에 오세근–양희종–박찬희–김태술로 이어지는 '베스트5'는 이름만으로도 배부르다.

'김주성의 동부' 공격농구로 팀컬러 변신

오세근이 데뷔 시즌 챔피언을 꿰차려면 김주성을 넘어야 한다. 김주성은 설명이 필요 없는 KBL 최고의 빅맨. 2미터5, 92킬로그램으로 다소 호리호리하지만 골밑에서의 중량감은 국내 최강이다. 성실하고 기복 없고 영리하다. 무엇보다 포스트에서 끈질긴 수비로 상대팀의 공격을 원천봉쇄한다. 감독들은 "10점을 넣어도 10점을 막는 선수"라고 혀를 내두른다. 데뷔했던 2002~2003시즌부터 팀을 챔피언에 올려놨고, 최근 9시즌 중 세 번의 우승에 앞장섰다.

'김주성의 동부'는 더 완벽해져서 돌아왔다. 지난 시즌 KBL을 강타했던 '트리플 포스트' 김주성–윤호영–로드 벤슨은 올해도 유효하다. '트리플 포스트'는 높으면서도 빠르고 경기의 흐름을 읽는 눈까지 탁월해 다른 팀들을 압도했다. 다른 팀들이 새 외국인 선수와 호흡을 맞춰야 하지만 재계약한 벤슨은 동부의 농구에 단련돼 있다. 라운드 초반부터 빈틈없는 조직력으로 나설 수 있다.

전력 누수도 거의 없다. 석명준과 최윤호를 영입해 팀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인 외곽슛까지 보완했다. '초보딱지'를 뗀 강동희 감독은 세밀한 전술운영과 탁월한 임기응변으로 최고 명장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동부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를 4위로 마치고도 1위 KT를 누르고 챔피언결정전까지 진출, KCC와 명승부를 펼쳤다. 지난 시즌 준우승에 그친 한을 이번에 풀겠다는 각오다.

동부는 지난 시즌 평균 70.1점을 내주는 '짠물수비'로 승수를 쌓았다. 그러나 득점은 평균 73.9점으로 꼴찌였다. 점수를 쉽게 주지 않았지만 많이 넣지도 못했다. 그러나 올 시즌 달라졌다. 시범경기를 통해 '공격농구'를 선보였다. 김주성과 '리틀 김주성' 윤호영은 외국인 선수가 한 명뿐인 상대 골밑을 자유자재로 휘저었고 외곽에서는 안재욱과 최윤호의 3점포가 림을 갈랐다.

강동희 감독은 "선수들이 오랫동안 손발을 맞추다보니 각자의 움직임에 익숙해졌다. 외곽이 받쳐주면 다득점도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G

글·조은지 (서울신문 스포츠부 기자)

이런 절제 때문에…

이석형(李石亨·1415~1477)은 세종 23년(1441) 문과에 장원급제했다. 생원시, 진사시에 이은 조선 최초의 '3시(試)' 장원급제자였다. 장원급제자는 첫 벼슬을 6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석형 또한 사간원 좌정언이 되어 벼슬길에 오른다.

당시 그의 문과급제 동기생 중에는 훗날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김국광(金國光)을 비롯해 양성지(梁誠之) 김수온(金守溫) 강희안(姜希顔) 등이 있다. 세종 시절 주로 집현전에서 순조롭게 관직생활을 했고 문종 때는 세자(훗날의 단종)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도 오를 만큼 탄탄대로를 걷는 듯했으나 그도 역사의 파고를 피해갈 수 없었다.

계유정란과 그에 이어지는 세조의 집권이다. 여기서 그는 바로 상관이던 성삼문이나 하위지 등과는 다른 길을 걷는다. 애초에 이석형은 수양대군과 가깝기도 했다. 세종 때 함께 〈병요(兵要)〉라는 군사서를 편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석형은 정치성향이 강하지 않았다. 어쩌면 스스로 조심했는지도 모른다.

세조는 이석형을 아꼈다. 특히 지방관리로서 그의 이재(吏才)를 높이 평가했다. 그래서 세조 때 이석형은 전라도관찰사를 시작으로 해서 공주목사, 한성판윤(漢城判尹·지금의 서울시장), 황해도관찰사 등을 두루 지냈다. 이후에도 경기도관찰사와 한성판윤을 다시 지냈는데 도합 7년 동안 한성판윤을 지냈다. 요즘으로 치면 관선 서울시장을 7년 동안 재임한 것이다.

조선 최초 3試 장원 이석형
계유정란·세조의 집권 시절
사육신·생육신, 신숙주와 달리
묵묵히 자기 앞만 보고 걸어갔다

정몽주·송시열과 이어진 인척관계로 선망받기도

세조가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이석형은 판서를 거쳐 정승의 자리에 올랐을지도 모른다. 세조는 평소 이석형을 불러 술자리를 자주 하면서 "경은 한성판윤 자리를 너무 오랫동안 맡겨둔다고 원망하지 말라. 내 반드시 크게 대우하리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그러나 얼마 후 세조가 세상을 떠나자 이석형은 동료들의 견제 때문이었는지 중책은 맡지 못하고 중추원의 이름뿐인 고위직을 역임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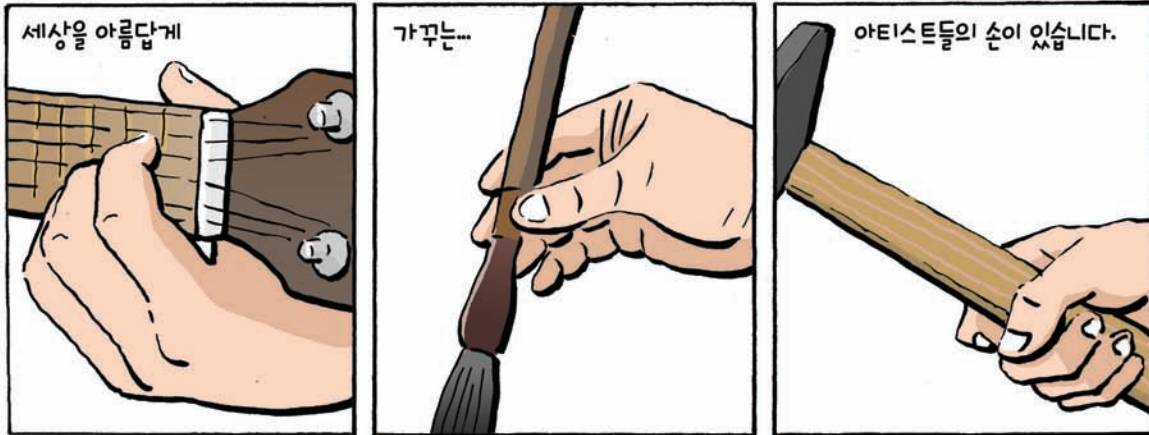
돌이켜보면 이석형은 태평성세와 난세를 함께 살아낸 조선 최초의 엘리트 관료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선후배 동료들이 사육신이 되고 생육신이 될 때 묵묵히 자기 앞만 보고 걸었다. 자리에 대한 과욕을 부리지도 않았다. 이런 절제 때문에 그는 훗날 성삼문처럼 크게 이름을 날리지는 못했지만 목숨은 보전할 수 있었다. 신숙주만큼 욕을 먹지도 않았다.

이석형은 학식과 더불어 여러 가지로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는 정몽주의 손자인 정보(鄭保)의 사위로도 유명했다. 특이하게도 이석형의 묘는 처가 집안인 영일 정씨 집안 묘역에 있다. 정몽주의 묘소 근처에 그의 묘가 있다.

이석형은 2남1녀를 두었는데 외동 사위가 송여해(宋汝諧)다. 성종과 연산군 때의 중견관리였던 송여해의 이름이 유명해지게 되는 것은 먼 훗날 송시열로 인해서다. 송시열은 은진 송씨로 연산군에 대해 직간(直諫)을 서슴지 않다가 유배를 가는 송여해의 6대손이다. 느슨하게나마 정몽주~이석형~송시열로 이어지는 인척(姻戚)의 학맥을 떠올려보는 것도 역사 읽기의 한 재미다. G

글 · 이한우 (조선일보 기획취재부장)

고맙습니다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성숙한 시민의식, 나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한국 근현대의 발자취 전통 한복에서 찾는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우리 전통의상인 한복이 고운 맵시를 뽐낸다. 사진은 지난해 창덕궁에서 열린 한복페스티벌의 모습이다.

축제 **대한민국 한복 페스티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는 '한복, 근대를 거닐다'라는 주제로 한국 근현대의 역사적 관문인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에서 한복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1일 한복 패션쇼와 30일까지 진행되는 한복 관련 기획전으로 구성된다. 전통과 신문물이 공존하던 근대를 우리 전통 복식인 한복으로 조명한 축제다.

일시 10월 21~30일 **장소** 문화역서울 284 **문의** 02-733-9070

전시 **브루노 무나리 전** 피카소가 제2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격찬했던 브루노 무나리는 순수회화에서부터 조각, 제품 등 장르의 경계를 넘는 광범위한 창작 활동을 벌인 예술가다. 이번 전시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창조적인 놀이도구, 그림책 등 정형화되지 않은 실험 결과물을 볼 수 있다. 대중적이면서도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는 작가의 기발한 상상력이 담긴 작품 세계를 표현했다.

일시 10월 30일까지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문의** 02-580-1300

공연 **프라하필하모니아 내한공연** 세계 오케스트라 톱 클래스로 성장하고 있는 프라하필하모니아가 아시아 초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프라하데이(Prague Day) 일정과 함께 이뤄진다. 프라하필하모니아는 세계 거장들이 가장 협연하고 싶은 오케스트라로 손꼽고 있다. 한국 뮤지션으로는 조수미, 사라장(장영주)과 협연한 바 있다. G

정리·김이슬 인턴기자

일시 10월 22~23일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02-338-3513

공연	장소	날짜	문의
뮤지컬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SM아트홀 2관	10월 30일까지	1600-1602
우연히 행복해지다	하모니아 아트홀	10월 30일까지	053-254-7241
쿠킹 위드 엘비스	한양레퍼토리	10월 30일까지	010-9238-8316
도도	학전블루소극장	10월 24일까지	02-763-8233
6시 퇴근	CK아트홀	10월 27일까지	052-275-0077
연극			
예수와 함께한 저녁식사	윤당아트홀 2관	10월 23일까지	02-518-9522
유츄프라카치아	북촌아트홀	10월 29일까지	02-988-2258
애기똥풀	북촌아트홀	10월 29일까지	02-926-1345
신의 아그네스	PMC대학로자유극장	10월 30일까지	1566-5490
카니발	아리랑 아트홀	10월 23일까지	070-7555-7195
콘서트			
엑스재팬 내한공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10월 28일	02-548-0597
김조한 콘서트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10월 28~29일	1544-1555
화합의 빛 소리의 빛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10월 25일	031-510-5409
화이트스네이크 내한공연	악스코리아	10월 26일	02-332-3277
부활 라이브 투어	제주아트센터	10월 22일	1544-0412
메탈하니 Vol.6	KT&G 상상마당 라이브홀	10월 23일	02-330-6212
클래식			
김영률 리사이틀	호암아트홀	10월 21일	02-751-9607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	10월 21~22일	02-440-0500
Duo A&U	올림푸스홀	10월 21일	1588-8440
장일범의 클래식카페	호암아트홀	10월 22일	02-751-9607
오페라/무용			
라보체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10월 29~30일	02-3446-9654

10월 셋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10월 2일~10월 8일)

곡명	가수
1 동경소녀	버스커 버스커
2 여우야	투개월
3 달의 몰락	울랄라세션
4 Sixth Sense	브라운아이드걸스
5 Hello	허각
6 내가 이렇지 (Feat. 하동균)	지아
7 못찾겠다 꾀꼬리 (조용필)	김경호
8 파라다이스 (Paradise)	인피니트
9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다비치
10 STEP	카라

다섯 잎 클로버

글과 그림 · 최영순

나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두 가지 말을 반복합니다 그 하나는 '왠지 오늘은 나에게 큰 행운이 생길 것 같다'이고 또하나는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입니다 – 빌 게이츠

인간세상의 '살맛 나는' 숨구멍

일러스트·김윤영

근래 들어 알게 된 이야기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바보회'에 관한 일이었다. 지난 세기 후반의 이야기다. 서울의 여항(閭巷) 어디에 바보회가 있었으니 모임의 좌장은 또렷한 눈빛과 재빠르고 재치 있는 언행으로 알려진 시인 S였다. 바보회에 입회하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기존 회원들 앞에서 바보회에 들기를 원하는 사람이 일생일대의 바보짓을 고백하고 회원들이 그에 응해 "거 참 바보짓일세"라고 끄덕이면 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유명 건축가 J가 입회를 청했고 신입회원 심사를 위한 모임이 이루어졌다. J는 최근 자신이 설계해 준 소설가 H의 집이 두 채로 이루어졌고 두 채 사이는 낭하로 연결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집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낭하와 건물을 연결하는 부분에서 빗물이 새기 시작했고 스며든 빗물로 집 두 채의 천장에 곰팡이꽃이 잔뜩 피었다고 고백했다.

회원들은 그게 무슨 바보짓이냐고 오히려 어리둥절해했다. 집이란 게 건축가가 설계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시공업체, 사람, 기후 변화, 불운 등 무수한 변수가 개재한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한순간 입회를 거절당할 위험에 처한 J는 비교적 근래에 있었던 일에 대해 털어놓았다.

세상 사람들의 숨구멍이 되어주는 '바보 이야기'

그는 평소에 포장마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점상들에게 뭔가 유익한 일을 해줄 수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시 당국에서 불법 포장마차를 일부 양성화하면서 디자인을 새로 공모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J는 즉각 설계에 착수해 튼튼하면서도 아름답고, 특히 천둥과 비바람 속에서도 빗물이 절대로 새지 않도록 지붕을 보강한 이상적인 포장마차를 설계해 출품했다.

그의 설계안은 시 당국의 심사를 통과해 포장마차를 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무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개방되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그 설계안대로 포장마차를 만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너무 장려하고 이상적인 설비를 많이 갖춘 나머지 그 포장마차가 굴러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다른 사람에게 할 줄 몰랐다는 J의 마지막 말을 들은 바보회 회원들은 박장대소하면서 그의 입회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바보회에서는 건강관리와 체력증진을 위해 회원 전원이 참석, 등산을 하기로 결정했다. 연락을 맡은 신입회원 J는 등산 날짜가 명절 연휴 첫날인 데 대해 좌장 S에게 연유를 물었다. S의 대답은 "그러니까 바보회지"였다.

J는 회원 모두에게 연락을 취했고 모두로부터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각, 정해진 장소에 오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당일이 되어 약속 장소에 나간 J는 S 말고는 아무도 와 있지 않은 것을 보고 경악했다. 가장 오래도록 모임에 참석해 왔던 S는 더 이상 아무도 오지 않자 껄껄 웃으며 "야, 이거 우리가 오늘 제대로 바보짓을 했네. 이제 우리 두 사람으로 바보회 안에 상바보회를 하나 더 만들까나?" 했다고 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 상황은 이와 많이 달랐다. 하지만 그들이 그 모임의 한때를 갑갑한 현실의 숨구멍으로 삼았다는 것, 나아가 그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세상 사람들의 숨구멍이 되어주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바보들 이야기를 들으며 나 또한 한동안 머리속으로 청량한 바람이 드나드는 듯 시원했다. 지금의 인간세상에 또 어디 바보처럼 비어 있는 곳은 없을까?

글·성석제 (소설가)

영산강 승촌보 자전거길

4대강새물결

자전거 새물결

영산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굽이굽이 흐르는 물결을 따라
상쾌한 강바람을 맞으며 자전거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1,692km 4대강 자전거길 중 영산강변을 따라
총 416km의 상쾌한 자전거길 조성

가슴에서 가슴으로 흐른다

NAVER (+Mobile) 4대강

4대강 자전거길

한강

총 307km
종주노선 팔당대교~충주댐 | 연장 : 135km
종주노선 보조노선

영산강

총 416km (섬진강 168km 포함)
종주노선 영산강하굿둑~담양댐 | 연장 : 131km
종주노선 보조노선

낙동강

총 598km
종주노선 낙동강하굿둑~안동댐 | 연장 : 378km
종주노선 자전거 테마루트

금강

총 271km
종주노선 세종시~금강하굿둑 | 연장 : 110km
종주노선 기존도로 병행구간

북한강 자전거길

금강지천 위치도